

이라크 민중에게 의약품....

이라크의 고통받는 민중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합니다.

신성국 신부님과 박창일신부님께서는 암만에서 이라크 전후 지원사업을 위한 활동방향을 모색중이십니다.

지금 이라크에는 단순한 외상약도 없어 많은 민중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세요.

이라크 의약품 지원을 위한 후원금을 모금합니다.

국민 504501-01-034222 문정현 (평화팀)

주최: 천주교평화연대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한국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한국남자수도회장상연합회 사회사목분과)



한겨레 이라크 캠페인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라크 어린이에게 의약품”

- 1. 시기: 3월28일 ~ 5월31일까지
- 2. 주최: 한겨레신문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
- 3. 주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맹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기독교청년의료인협회, 남북어린이어깨동무, 베트남평화의료연대,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여성단체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겨레통일문화재단

4. 제1차-제5차 의료지원 경과보고:

한겨레신문사에서 주최한 <이라크 어린이에게 의약품> 캠페인은 5월31일로 성공모금이 마감되었습니다. 본 캠페인팀은 4월 12일 1차 의료진을 파견한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이라크 현지에 의료진을 파견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두 2만여명의 이라크 환자들을 진료하고 의약품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겨레의 이라크 캠페인팀은 5월말에 6차 의료진이 돌아온 후에도 알카미라 진료소가 계속 정상운영되도록 이라크인 의사 3명, 치과의사 1명, 약사 2명, 간호사 2명 등 의료진 8명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전자현미경, 혈액·소변 검사 장비, 치과 장비 등도 거액을 들여 새로 구입해 놓았습니다. 또한 알카미라 등 근처 병원 5곳에 의약품을 구입해 전달했습니다.

5. 제6차 의료지원(7월18일-8월4일) 경과보고:

- 1. 바그다드 내의4개 지역(알마시텔, 알까마리아, 알라세, 알후리아)을 선정하여 약 540개 가구 방문을 통해 역학조사를 실시
- 2. 바그다드내의 진료소 12곳을 방문하여, 의료센터 운영실태 조사 및 의료진 인터뷰를 실시함.

3. 캠페인 성공 집행결과

- 총8개의 헬스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약품 및 의료장비들을 조사하고 지원함.
- 지원지역: 알마시텔 헬스센터, 알바디라 헬스센터, 알라세 클리닉, 알까마리아 헬스센터, 알까디에 클리닉, 알라술 헬스센터, 알후리아 헬스센터, 사담시티 헬스센터

- 1) 알후리아:
 - ① 의약품 지원: 10,000 달러
 - ② 의료장비 지원: 1,100 달러

2) 그 외 7개 지역

- ① 의약품 지원: 43,400 달러
 - ② 알마시텔 헬스센터 수리비용: 17,000 달러
 - ③ 의료기구: 10,000 달러
 - ④ 알마시텔 지역 어린이 놀이방 조성(반전평화팀의 이동화씨가 추후 집행): 4,000 달러
- * 총 85,500달러 지원

3) 역학조사 실시비: 약 2,000달러

6. 모금총액 보고:

- * 6월 2일까지 집계된 모금 합산액: 413,295,950 원
- 남북어린이어깨동무: 90,021,382원
-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49,550,690원
- 한겨레통일문화재단: 273,723,878원



민족문학작가회의



1. 오수연 회원(소설) 작가회의 파견작가 신분으로 이라크 전쟁지역에 파견

- 일시 : 3월 14일 파견
- 기간 : 최장 3개월
- 활동지역 : 중동지역 일대
- 활동내용 : 전쟁반대를 위한 NGO활동, 취재활동
- 후원 : 문학동네, 창작과비평사, 한겨레신문사
- 3월 21일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취재활동 중

2. 전쟁 파견반대 시위

- 주최 :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현
- 일시 : 2003년 3월 22일(토) 종묘공원 / 3월 24일(월) 국회 앞

3.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반대하는 문학계 203인 행진

- 일시: 2003. 3. 25(화) 오후 5시 / 장소: 종묘공원(세운상가 맞은편)
- 일정: 종묘공원 집회 후 광화문 미대사관까지 행진
- 참여통보 전화 : 02) 313-1486 e-mail : minjak21@dreamwiz.com

4. 반전 평화 엽서전 - 부시에게 보내는 메시지

- 주최 :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민예총
- 일시 : 2003년 3월 29일~30일 오후 3시

5. 이라크 종군 작가 오수연 회원, 이라크 재 출국

- 일시 : 2003년 6월 26일 오후 7시
- <전쟁보고서> 필자로, 반전평화팀과 한 달 정도 체류 예정.

<성명>

미국은 더러운 전쟁을 당장 중단하라
정부는 파병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우리는 지난 2월 15일자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을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3월 20일 미국은 세계의 반전평화운동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 대한 대규모 침략전쟁을 단행, 마침내 전쟁의 검은 유령이 현실로 드러났다. 광기와 전쟁중독에 사로잡힌 부시의 이 놀라운 망동에 우리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 침략전쟁은 인류의 평화를 짓밟는 범죄행위이다. 이 전쟁을 통해 팽창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힌 미국이 드디어 자멸의 길에 들어섰음을 우리는 주시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이 이 명분 없는 침략전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이 전쟁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을 반대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호소하면서도 이라크의 침공에 찬동하는 현실적 논리에 비애를 금할 수 없다. 미국의 강요에 굴복하여 전쟁지지를 표명한 노무현 정부는 우리 국민을 이 더러운 전쟁의

동참자로 만들지 말라.

우리는 다시금 강조한다. 그 어떤 나쁜 평화라도 언제나 전쟁보다 옳았다. 미국은 인류를 공멸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전쟁을 당장 중단하라.

- 미국은 이라크 침공을 당장 중단하라!
-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침략전쟁지원을 당장 중단하라!

2003년 3월 21일
사단법인 민족문화작가회의

긴급보도자료

121-010 서울 마포구 아현동 612-5 (사)민족문화작가회의 / 전화 313-1486~7, 팩스392-1838

날짜: 2003. 3. 24

수신: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및 문화담당 기자

발신: (사)민족문화작가회의 (이사장 염무웅)

제목: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반대하는 문학계 203인 행진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반대하는 문학계 203인 행진

- 15년 만에 다시 거리로 나서는 작가들

1. 1974년 11월 광화문 노상에서 기습성명을 발표하며 반유신 민주화투쟁의 포문을 열었던 작가들이 다시 거리로 나선다.
2. 민족문화작가회의 염무웅 이사장은 24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내는 '긴급호소문'을 통해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을 촉구하는 한편, 작가들에게 '긴급한 행동을 요청하는 제안'을 발표했다.
염무웅 이사장은 작가들에게 보내는 제안서에서 '문학적 경향과 미학적 기준의 차이를 떠나 인간의 존엄을 다루는 문학인의 이름으로 21세기 인류의 명예를 모욕하는 이 비열하고 아만적인 학살전쟁을 중지시키기 위한 행동의 대열에 하나가 되자'며 민족문화작가회의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반전평화시위에 함께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3. 민족문화작가회의가 범문단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가두집회를 결정하고 거리로 나서기는 1987년 6월항쟁 이후 15년 만의 일이다.
4. 염무웅 이사장의 호소에 호응한 작가들의 뜨거운 반응은 즉각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고은, 신경림, 박완서, 백낙청, 황석영, 조정래, 김주영 등의 문인들이 참석의사를 속속 알려오고 있다. 민족문화작가회의 강형철 상임이사는 '30년 전인 74년 11월 광화문 거리에서 기습성명을 발표했던 고은, 백낙청, 염무웅, 이시영, 송기원 등의 월기왕성했던 문인들이 백발 성성한 모습으로 앞장을 서고 황광수, 황현산, 김영현, 김사인, 이재무, 정도상, 안도현, 방현석, 공선욱, 방민호 등의 중견작가들과 한창훈, 박형준, 전성태, 송경아, 김벌아, 김종광, 김지우, 윤성희, 표명희, 김윤영과 같은 신진작가 등 한국문단의 대표적인 작가 203인이 25일 거리시위에 나선다'고 말했다.
5.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반대하는 문학계 203인 행진
일시: 2003. 3. 25. 오후 5시 / 장소: 종묘공원

첨부

1. 성명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반대하며'
2. 국회에 보내는 긴급호소문
3. 작가 여러분께 드리는 긴급 호소

첨부 1.

<성명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단호히 반대하며

미국은 지난 20일 새벽, 인류의 수천만 양심들이 전쟁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침공을 개시하였다.

미사일과 폭탄이 폭발하는 지점, 바로 그곳에서 아이들의 잘려진 팔다리가 허공으로 솟아오르고 무너진 집더미가 여자와 노인들을 깔아뭉개는 장면을 CNN은 중계하지 않았다. 대신 우리는 폭격기에 장착된 카메라가 보여주는 수많은 폭탄이 한꺼번에 터지는 불꽃놀이를, 목표물을 찾아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는 첨단무기의 효능을 객관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다. 전 세계 텔레비전 방송은 앞다투어 실시간으로 폭격 상황을 그림으로 내보이면서 전쟁을 마치 게임처럼 중계하고 있다.

첨단무기의 불꽃놀이를 통해 미국의 승리가 시시각각으로 타전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아수라의 지옥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구체적인 인간들을 떠올린다.

그러나 우리의 감긴 눈, 세계의 비극을 마주하기 싫어 달은 눈꺼풀 속 망막 위에서 어린아이의 비명이 몽크의 절규처럼 점점 크게 떠오른다. 미사일과 폭탄이 제발 비껴가기를 소망하면서 죽음의 순간들을 견디고 있을 이라크 국민들과 바그다드 시민들, 그들 영혼의 처참한 떨림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생생하다.

그러나 지난 3월 21일 금요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군의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파병동의안은 오는 4월부터 연말까지 1개 대대 600명 이내의 건설공병지원단과 100명 이내의 의료지원단의 파병, 미국 및 동맹군의 기지운영에 필요한 지원과 이라크 전후복구 지원, 미국 및 동맹군의 진료, 인도적 구호활동을 펴도록 했으며 이를 위한 예산 360억원을 정부 예비비에서 사용토록 했다.

게다가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라크 전쟁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이었던 상식과 원칙이 사라지고 국가 이익이라는 파시즘적 논리에 몸을 맡기며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평화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며 양보할 수 없는 공공의 선이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는 국가 이익에 우선한다. 이것이 원칙과 상식이 아닌가?

평화에 대한 세계와 인류의 간절한 소망을 짓밟은 전쟁에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다. 우리는 제국주의 침략에 동의한 적이 없다. 바그다드가 함락되고 나면 그 황폐한 사막 위에 미국의 식민지가 건설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사막 깊은 곳에 잠겨 있는 매장량 세계 2위의 유전을 미국은 손쉽게 차지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의 더러운 사냥개가 될 것인가?

사냥이 끝나고 나면, 미국은 새로운 사냥거리를 찾아 침략의 눈초리를 빛낼 것이다. 그 대상은 바로 우리들의 또 다른 조국이며 대지이며 운명공동체인 북녘이다. 후세인 제거의 논리는 그대로 김정일 제거의 논리이며, 바그다드 폭격의 논리는 그대로 평양 폭격의 논리로 바뀔 것이다. 첫 사냥이 끝난 후, 미국은 또 다른 사냥개들을 몰고 와 북녘을 유린할 것이다.

바로 이점에서 우리는 더 이상 창작실과 무대와 현장만을 지키고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인류의 양심이 가고자 하는 길이다. 그 어떤 논리로도 침해받을 수 없는 평화의 길이 바로 그 길이다. 우리는 노무현정부의 공병대 파견을 반대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도 반대하는 활동에 나설 것이다. 그것은 인류의 영혼을 지켜온 문화 예술인들이 당연히 해야만 하는 근본적인 도리이다. 지금 전쟁을 지켜보는 인류의 영혼은 불안에 떨고 있다. 이것을 어찌 외면할 수 있단 말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 5조 제①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조항을 노무현 대통령은 수호하라. 스스로 원칙과 상식을 쓰레기통에 처박고 침략전쟁에 동승하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미국은 이라크 침략전쟁을 즉각 중단하라!

노무현 대통령은 군대 파견을 즉각 중단하라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03년 3월 25일
인류의 양심과 함께 하는 <민족문학작가회의>

국회에 보내는 긴급호소문

우리 작가들은 국회에 상정된 파병동의안이 국방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데 대하여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능가하는 그 어떤 국익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아랍인들이 인류사에 쌓아놓은 위대한 문화를 파괴하고 이라크의 아이들을 죽일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전쟁이 아니라 학살이라고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문학은 이 학살전쟁을 21세기 인류의 명예를 모욕하는 가장 더럽고 아비한 전쟁으로의 인류의 양심 위에 새길 것입니다.

이 전쟁에 군대를 파견하는 행위는 우리 국민 모두를 전쟁의 공범자로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작가들은 부디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여러분이 우리 국민을 전쟁의 공범자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국회가 파병동의안을 통과시킨다면 모국어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작가들은 국민의 영혼을 대표하여 영원히 그 행위를 잊지 않게 기록하고 증언할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과 존엄을 다루는 문학과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다루는 정치가 이 엄중한 현실 앞에서 지나치게 견해를 달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이름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깊이 숙고하시어 현명하게 결단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 염무웅

* 연락처: 전화 02)313-1486 e-mail: minjak21@dreanwiz.com

작가 여러분께 드리는 긴급 호소

전세계적인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시작되면서 우려되었던 참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도 아랍인들이 인류사에 쌓아놓은 위대한 문화를 파괴하고 이라크의 아이들을 해칠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이라크 침공은 전쟁이 아니라 학살이라고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세계의 문학인들은 이미 이 학살전쟁을 21세기 인류의 명예를 모욕하는 더럽고 아비한 전쟁으로의 인류의 양심 위에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날 우리는 전쟁의 참혹함을 뼈저리게 체험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이라크 다음으로 미국의 타격목표가 되고 있는 한반도에서 문화를 하고 있는 우리의 심경은 참으로 비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에 상정된 파병동의안이 국방위원회를 통과하여 25일 본회의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능가하는 그 어떤 국익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 전쟁에 군대를 파견하는 행위는 우리 국민 모두를 더러운 침략전쟁의 공범자로 만드는 일입니다.

모국어를 책임진 우리 작가들의 발언과 역할이 긴급한 시점입니다. 인간의 존엄을 다루는 문학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영원히 인류의 양심과 상처와 영광을 함께 할 것입니다. 문학적 경향과 미학적 기준의 차이를 떠나 이 비열하고 아만적인 학살전쟁을 중지시키기 위한 행동의 대열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내일 중요공원에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3. 3. 24.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 염무웅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2002년>

10월 26일

이라크 공격 반대 국제공동반전행동의 날, 플래카드 및 배너 '이라크 어린이에게 필요한 것은 폭탄이 아니라 의약품입니다'를 들고 집회 참여

12월 1일

소파개정 및 전쟁반대를 위한 보건의료인 선언 및 기자회견

<2003년>

2월 6일

한국 이라크반전평화팀에 100만원 가량의 의약품 전달

2월 13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내 '이라크 어린이에게 의약품' 성금 모금 시작

홈페이지 개설 (<http://www.kfhr.org/iraq/main.htm>)

2월 15일

국제공동반전행동의 날 보건의료단체연합 70여명 참여

3월 17일

"우리의 이름으로 이라크 어린이들을 죽이지 말라" 성명 발표

3월 20일

미국의 공격 개시

3월 22일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반대하는 국제공동반전평화대행진 120여명 참여

3월 25일

전쟁반대 기자회견 및 파병안 통과 저지를 위한 국회 앞 시위 참가

한겨레신문사와 '이라크 어린이 의약품 보내기 캠페인' 관련 회의

3월 28일

한겨레신문사 '이라크 어린이에게 의약품' 캠페인 기사 게재

4월 2일

파병동의안 국회 통과 저지 집회 정리

이라크 의약품 전달을 위한 의료진 파견에 대한 논의/이라크 의약품 보내기 운동의 실무팀 구성

4월 12일

정성훈(건치), 김해룡(인의협) 1차 의료진으로 출국

4월 16일

바그다드 상담정형외과에 마취제 전달

4월 20일

송관욱(인의협), 이영욱 교수정(침한) 2차 의료진 출국

4월 27일

- 성라파엘, 알-까미라, 산부인과, 및 헬스센터에 의약품 전달

4월 28-29일

- 뉴바그다드의 Daood Al Janbi Central Health Center에서 진료 진행

5월 1일

- 손정석, 김나연, 변혜진 3차 의료진 출국

5월 6일

- 암만에서 의약품 구매 후 바그다드에 도착함

5월 6-12일

- 알-바디아 응급진료소에서 진료 진행
- 알-까미라 등 진료소에 약품 전달

5월 8일

- 김정범, 정경진, 이준혁 + 김양중기자 4차 의료진 출국

5월 12일

- 구입한 의약품을 가지고 4진 바그다드 도착

5월 13일

- 쿠르드난민촌 방문, 소량의 의약품 전달
- 알-마쉬텔 응급진료소에서 진료 시작

5월 15일

- 손정석, 변혜진 의약품 구매를 위해 요르단 암만으로 나옴

5월 16일

- 정상호, 우석균, 김영희, 고수정, 김성수, 정영예, 권미선, 김은희 5진 의료진 출국

5월 18일

- 5진 바그다드에 도착

5월 19-27일

- 알마쉬타 응급진료소에서 진료 진행

5월 28일

- 알-까미라, 알-바디아, 알-자하라, 알-마쉬텔 진료소에 의약품 전달

5월 26-28일

- 8개 학교 학용품 전달(노트북, 스케치북, 치약, 칫솔, 색연필, 연필 등)



한국건강연대
(전 건강을위한국민연대)



2003년 2월 6일 IPT 1진 출발시(한상진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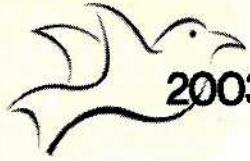
응급요법 후원으로 에너지물, 테잎, 솜, 소금, 홍삼, 썩 등을 후원받아 지원하고 자가처치법 지도 (이후 4차까지)



여성해방연대



*참고 : 여성해방연대와 박기범이리크통신은 자체적으로 백서를 제작합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관련 국내 반전평화운동 일지

2. 11

-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 미대사관 앞 이라크 공격 반대 기자회견

2. 12

- 청년학생반전위원회, 신입 총학생회장 및 학생대표 반전 선언
- 부산 원로, 시민사회단체, '이라크 전 반대와 한국정부의 이라크파병반대' 공동선언 기자회견

2. 13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반전 평화 기독교연대를 발족 및 '반전 평화 기독교연대 평화선언' 발표

2. 14

- 이라크전쟁반대 한반도 전쟁위협규탄 천주교인 기자회견
기자회견후 현장미술가 최병수 작가의 이라크전쟁반대 퍼포먼스
- 민족문학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을 단호히 반대한다' 성명 발표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등 27개 천주교 단체, '이라크 전쟁 반대, 한반도 평화 위협 규탄 천주교 기자회견' 진행 후 전쟁 종단을 촉구하는 거리행진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7개 교수단체, '반전평화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

2. 15

- 미국의 이라크 공격 반대, 한반도 전쟁 위협 반대, 살인 미군 처벌을 위한 "제6차 대학생 행동의 날"
- "이라크 공격 반대·한반도 전쟁 위협 반대 2·15 국제 공동 반전 평화 대행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원주 등 6개 도시에서 진행.

2. 21

- 여중생범대위, 여중생 사건 해결 및 반전평화 실현 제 정당 시민사회지역단체 비상 시국 대표자 회의

2. 22

- 반전평화 공동행동의 날
동시다발 1인시위 : 오후 2시, 이라크전 찬성 국가들 대사관 앞
반전평화 문화제 : 오후 5시, 대학로

2. 24

-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 콜린 파월 미국무장관 방한 규탄 기자회견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가톨릭평화지기, 이라크 전쟁반대 한반도 평화 염원미사

2. 26

- 평통사 23차 평화군축 집회, 이라크 파병반대, 용산미군기지 이전비용 부담 반대, 용산기지 내 아파트 건립 및 고가도로 건설 반대

- 부산 '통일을 여는 사람들', 이라크침공반대·한반도전쟁위협을 반대 반전평화 1인 시위

2. 27

- 반전평화 여성행동 "평화의 빛, 춤, 그리고 여성"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합, 군사주의반대여성평화네트워크, 평화인권연대, 보육교사회, 천주교여성공동체, 여전연합, 여성해방연대, 전여대협, 여신협, 평화여성회, 한어노협 등 공동 주최. 반전평화팀 활동보고, 여성계 입장 발표, 여성계입장 성명서 미대사관 전달
- 반전평화 불교대책위원회, 반전평화선언 기자회견 및 '평화의 등' 달기
- 수원지역비상시국회의, 수원시민평화대행진 및 촛불시위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반전평화기독교연대, 반전평화를 위한 기도회

2. 28

- 전쟁지원 국가 대사관 앞 2차 동시다발 1인시위
시민과 함께 하는 거리 한마당 "Stop the war!"

3. 1

- 여중생범대위·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 '살인미군 처벌! 부시공개사과! 소파전면개정! 이라크 침공 반대! 한반도 전쟁위협 반대! 3.1 민족자주 반전평화 실현 촛불대행진

3. 5

-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한국여성평화 네트워크,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여성해방연대 주최 '이라크 전쟁, 여성은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회

3. 8

- 박기범 이라크 통신, 네모성 등 반전평화 캠페인 진행

3. 11

- 소파개정국민행동, '한미연합훈련 중단, 용산미군기지 아파트 고가차도 건설 중단, 이라크 전쟁 반대' 42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 부산 '통일을 여는 사람들'·부산민족민주청년회, 이라크침공과 한반도 핵전쟁훈련을 반대하는 동시다발 반전평화 1인 시위

3. 12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주최, '이라크 전쟁 반대 및 한반도 평화 염원 미사'

3. 13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반전평화교회여성기도회 개최. 평화의다리놓기, 선언문 낭독, 세계교회여성들의 연대사 등 진행
- 개혁국민정당, 녹색평화당, 민주노동당, 사회당 '이라크 침략과 한국군 파병에 대한 4개 정당 공동성명서 발표, 부시행정부의 이라크 침공계획 포기·노무현 정부의 파병요청 거부 요구.

3. 14

- 이라크평화팀 노대통령-부시 전화통화 관련 청와대 항의방문
- 민주노총, '전쟁반대 대표단' 이라크 파견 기자회견. 김형택 부위원장 등 세명 파견.

- 민족문학작가회의, 소설가 오수연씨 파견작가 신분으로 이라크 전쟁지역에 파견
- 민주노동당 지방의원 42명, '이라크전 반대, 한국군 파병 반대' 공동성명 발표
- 여성해방연대, 노무현-부시 대통령 전화통화 규탄 청와대 항의방문

3. 15

- 전쟁반대반전평화공동실천·여중생범대위 등 이라크 침공반대! 한반도 전쟁위협 반대! 3.15 국제 반전 평화 촛불 대행진
- 네티즌 모임 '맘맘 바이러스', 반전공연 '내가 전쟁을 반대하는 이유' 시작(매주 토요일 대학로에서 진행)

3. 17

- 참여연대, 정부의 파병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청와대 앞 1인시위 17일~21일까지
- 민주노동당, 주한 외국대사관에 미국의 이라크 전쟁 반대 호소문 발송. 안전보장이사회이사국 주한대사관에 이라크 결의안 표결시 반대할 것 요구. 일본 주한 외국 대사관에 이라크 침략전쟁 저지, 전쟁 지원 요청 거부 호소
- 참여연대, '이라크전 파병은 왜 안되는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개서한 보내

3. 18

- 참여연대, 민연련, 환경운동연합, 여성단체연합, 녹색연합, 민주노총 등 정부의 이라크전 지지 및 파병방침 철회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3. 19

-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정부의 이라크전지지 및 파병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종합청사, 청와대, 국방부 앞 동시 1인시위
- 반전평화여성행동, '이라크 침공과 한국군 파병을 반대하는 여성들의 외침' 진행.
- 민주노총, 전쟁반대 평화실현 반전평화 대국민캠페인
- 에너지시민연대, '이라크전 반대' 기자회견

3. 20

-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이라크 침공 규탄" 긴급 기자회견 및 시위
- 시민단체 대표, 이라크전 파병 관련 운영관 외교통상부 장관 면담-박상준 참여연대 공동대표, 최열 환경연합 대표, 이 김현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등 참석
- 전국민중연대, 미국의 이라크 침공 반대, 한국 지원 반대 기자회견
- 부산여성회·전국여성노조 부산지부 등 여성단체, 부산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이라크 전쟁반대 촛불 인간띠 잇기' 진행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전쟁 중단과 한반도 전쟁 위기구조를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 평화수업과 평화버튼 달기운동 등 전개하기로 함

3. 21

-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 지원연대 지원연대대사관앞 1인시위와 마로니에 촛불시위 시작
- 전국민중연대,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 한국지지 지원결정 규탄 기자회견
-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전쟁반대 및 이라크어린이에게 의약품 보내기 범한의학계 서명운동 시작
- 이라크전 파병관련, 여야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긴급 간담회
-참석자:김근태(민주당),김부겸(한나라당),안영근(한나라당),서상섭(한나라당),송영길(민주당),김원웅(국민개혁정당) 외 김숙임(평화를만드는여성회공동대표),아오경숙(한국여성단체대표),서주원(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박순성(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김기식(참여연대사무처장),김제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외
- 참여연대, 파병반대 청와대앞 1인시위 5일째 신해철, 방은진씨 등 참여
- 민주노동당 전쟁반대 파병반대 기자회견 및 권영길대표 국회앞 1인시위

- 한국, 일본 시민단체 파병반대 공동성명 발표 - '대전·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공동대표 허충희)와 일본의 '평화헌법을 살리는 구마모토 현민의 회', 한일정부의 파병 결정 철회를 촉구.
- 전국교수노동조합, '미국의 이라크 침략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교수 800인 선언' 발표
- 충북 전교조, '반전수업' 진행 발표

3. 22

-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 "이라크 침공 규탄 반전 평화 범국민대회"
- 환경재단, 참여연대 등 6개단체, '탁났한 스님 방한 기념 평화염원대회' 개최
- 민주노동당,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전 파병 결정을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불허한다'는 헌법 제5조 1항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 국무회의의 파견동의안에 대해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제출.

3. 23 ~ 28

- "전쟁 반대 파병 반대" 시위 및 농성 국회 앞

3. 23

-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시민사회단체 "한국군 파병과 국회비준 반대" 기자회견 및 철야농성

3. 24

- 참여연대 파병반대 1인시위, 김미화, 정진영씨 등 참여 :10시~10시30:김미화 (개그우먼), 10:30~11:00:정진영(영화배우) 11:00~11:30:오원주, 11:30~12:00:박경호, 12:00~12:30:강영모 12:30~13:00:박성환, 13:00~13:30:이광재, 13:30~14:00 김동훈 14:00~14:30:최현정, 14:30~15:00:김혜진
- 민주노총·한국노총, 파병반대 기자회견 및 국회 인간띠 잇기, 이라크전 한국군파병 저지 결의대회 및 민주노총 평화팀 귀국 보고대회, 이라크전 한국군 파병 국회비준저지 범국민 촛불대행진 진행
-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 중단 및 한국군 파병반대 여성 국회의원, 여성단체 기자회견
-참가의원:김경천,김희선,이미경,조백숙,최영희의원
-참가단체:평화를만드는여성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연합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쟁반대 파병반대 평화미사
- 민주노동당, 이라크 파병추진 규탄집회

3. 25

- 참여연대 파병반대 국회앞 1인시위-윤도현(가수)1인시위 참여
- 경실련·경불련·홍사단 등, 이라크전 반대와 파병철회 촉구 시민대회
- 보건의료단체, 의무병 포함한 한국군 파병반대 항의 기자회견
- 미국의 이라크 침공 규탄 및 한국군 파병 반대를 위한 문화예술계 기자회견 "우리는 전쟁이 아닌 평화를, 파병이 아닌 문화교류를 원한다"-문화연대, 민족문학작가회의 등 긴급 호소문 발표 및 3. 25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반대하는 문학계 203인 행진 진행.
- 전학협, 예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은국, 현종씨 한강대교 고공시위
- '이라크전 중지와 한국군 파병 철회를 위한 총학생회장단 네트워크', "이라크 침략에는 동참 반대" 성명 발표

3. 26

- 여중생범대위,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제 시민사회단체, '국회 파병 동의안 유보처리'에 대한 기자회견

- 민주노총·한국노총, 파병찬성 의원 낙선운동 선언
- 한총련, 전학협, 연대회의 등 학생단체 '전쟁반대!파병반대!' 미대사관 진격투쟁
- 천주교 평화연대, 신성국 신부 이라크 파견

3. 27

- 전국민중연대, 이라크전 한국군 파병 저지 위한 기자회견 및 철야농성
- 민주노동당 파병관련 기자회견, 이라크 파병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동의'를 요구, 이라크 파병 '국민투표' 제안. 권영길 대표와 노무현 대통령의 긴급 회동을 제안 민주노동당, 부시 미국 대통령 <국제형사재판소>에 전범으로 제소, 범국민적인 구호단 발족과 구호물품 모집
- 전국철거민협의회 전쟁반대 파병반대 기자회견
- 불교대책위, 이라크 전쟁 중단과 파병반대를 위한 걷기 시위
- 민주노총, 파병저지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
- 전교조, '미국의 침략전쟁 반대 특별결의문'전교조도 '미국의 침략전쟁 반대 특별결의문' 을 채택하고, 반전평화 공동수업 진행 채택, 반전평화 공동수업 진행 결의
- 보건의료단체, 반전토론회 '전쟁과 민중의 건강' 개최. 91년 걸프전과 2001년 아프카니스탄 전쟁 이후 어린이들의 건강 상태 보고회 등 진행
-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회원,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파병 동의안 부결 등을 요구하며 농성

3. 28

- 참여연대, 파병반대 국회앞 1일 1인 시위 - 모델 변정수씨 참가.
- '우리 모두의 손에 총대신 꽃을' 민주노동당 이라크전쟁 반대 평화콘서트

3. 29

- '미국의 이라크전쟁 반대, 한반도 평화실현' 전국민중대회 - 서울 수원, 부평, 춘천, 대전, 천안, 전주, 대구 등 전국 곳곳에서 열려
- 미국의 이라크 전쟁 반대·한국정부의 전쟁지원 반대·한반도 전쟁위협 중단·여중생문제해결·SOFA개정·국가보안법 철폐·양심수 전원석방·이적규정 철폐·정치수배 해제 요구
- "이라크 전쟁중단, 국회 파병동의안 저지" 반전평화 촛불대행진
- 반전평화 교육시장화반대! 스무 살, 세상을 향해 손을 내밀대 파문2003 문화제
- "반전평화운동의 확산을 위한 각계 간담회" 개최.(김숙임 김재남 김혜정 박원순 법 안 성해용 손호철 송보경 양길승 이대영 이부영 이원영 정대연 정현백 전중훈 최인순 최 열 한충목 황인성) 각계 원로급 인사들이 주축이 된 "반전평화를 위한 비상국민회의 준비모임"을 만들어 기자회견 형식으로 (가칭)"반전평화를 위한 비상국민회의" 소집을 제안.

3. 31

- "반전평화를 위한 비상국민회의", "반전평화캠프" 제안 - 45인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반전평화를 위한 비상국민회의"를 4월 3일에 소집할 것을 제안하고, 명동성당에 "반전평화캠프"를 설치.
- "반전평화비상국민회의" 제안자 명단(총 45인)
- 강만길(상지대 총장), 김진균(서울대 명예교수), 리영희(한양대 명예교수), 박상중(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영숙(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박용길(기독교 장로), 박형규(목사),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오종렬(전국연합 상임의장), 함세웅 신부, 홍창의(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고문) 등 각계 인사 45인
- 청년학생반전위원회, 반전 동맹휴업 및 대학생 행동의 날 기자회견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한국여자수도회 장상연합·한국 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이라크 전쟁중단 파병반대 한반도 평화 염원 천주교 기도회 '우리에게 평화를'

- 평화실현 기독교연대, '반전반핵 평화실현' 기자회견
- 충북연대회의·여중생충북대책위, 미국의 이라크 침략 중단과 한국군 파병반대 민주당,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항의방문
- 국회 파병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는 민변 철야농성
- (사)평화통일시민연대·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의원모임, 이라크戰 파병의 법적 검토 긴급 토론회 "이라크 전 파병에 관한 국제법·국내법상의 문제점과 대책" 개최
- 경실련,경불련 등 미국 이라크 침공 반대 집회

4. 1

-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 '반전평화 수업 선포' 기자회견
- 전쟁종식과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인천교구 대책위원회, 9일간의 도보순례 시작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군의 이라크 전쟁 파견 동의안'의 부결 촉구 철야농성
- 한국기자협회 임원진, 이라크전 반대 대사관 앞 1인시위
- 경실련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 시민단체, '이라크전과 전투병 파병을 반대하는 시민반전평화대회' 진행
- 사단법인 한국독립영화협회 등 영화 관련 단체, '전쟁중단 파병반대와 침공저지 철폐를 위한 영화인 선언' 을 발표
- 음악인 김덕수, 음악평론가 신현준씨, 가수 안치환씨 등 음악인 280여명, 이라크 전쟁 중단을 촉구하고 한국군 파병을 반대는 성명 발표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파병반대 성명서 채택

4. 2

- 반전평화 교수 학생 연대 집회
- 현장과학기술자, 교수, 대학원생 등, 과학기술인 반전평화 선언 발표. 장희익 녹색대학 총장, 이필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장재연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성우 전국과학기술노조위원장(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심정보 한국과학기술원 물리학과 박사과정 등 20여명이 대표 서명자로 참여.
- 조중.동 이라크전 보도 규탄 대학언론인 기자회견

4. 3

- 참여연대·민변, 파병결정취소 헌법소원 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
- 각계각층인사 5백여명 반전평화비상국민회의 개최
- 반전평화캠프 진행
- 각계 인사, 단체별로 일일 평화캠프 프로그램 진행. 매일 오후 명동인근에서 평화의 비둘기 시민 서명운동 추진. 1일 1 문화기획 프로그램 - 반전평화 작은 콘서트/ 반전평화 그림엽서 만들기/ 반전평화 티셔츠 전시회/반전평화 가장 행렬의 날/ 모의 전범재판/ 반전평화 만화가 사인회/ 평화의 시 낭송회/반전평화 시민대토론회/ 반전평화 노상수업
- 다산 인권센터,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동의안 국회처리 규탄 촛불집회
- 반전평화기독교연대, '위헌적인 파병동의안 통과 원인 무효 천명 기도회'
- 천주교 평화연대, 1차 반전 평화 사진전. 명동 YMCA앞 (서명 300여명, 모금 14,000원)국회 파병안 통과에 대한 천주교인권위 성명서 발표

4. 4

- 청년학생반전위원회·한총련, 미국의 이라크 침공 중단! 한국군 파병 계획 철폐! 한반도 전쟁위협 반대! 300만 대학생 행동의 날 진행

4. 5

- 살인미군 처벌! SOFA전면 개정! 부시공개 사죄! 이라크 침략전쟁 중단! 한국군 파병 철폐! 한반도 전쟁위협 중단! 131

차 광화문 범국민 촛불대행진

4. 7

민주언론운동연합·전국언론노조·시민방송, 이라크 침공' 관련보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4. 8

녹색연합 회원들이 풀어내는 이야기 마당 - 이라크 전쟁, 녹색의 눈으로 바라보기

4. 9

반전·평화를 위한 문화예술인 게릴라 문화행사 <반전·평화 게릴라 엽서展 - "부시에게 보내는 메세지"> 진행. 4. 9 ~ 4. 15, 인사동 관훈갤러리

4. 10

학단협·민교협·한국정치연구회·민주사회정책연구원, '파병안 국회통과와 반전평화' 긴급토론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쟁 반대! 파병 철회! 생명 평화를 위한 단식 기도회 4월 10일-14일
 한국정치연구회·학술단체협의회·한국정치연구회·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주사회정책연구원, '파병안 국회 통과와 반전평화' 긴급토론회

4. 11

전쟁반대!파병철회! 2차 전국대학생 동맹휴업 및 행동의 날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 중단 한국군 파병철회! 한반도 전쟁위협 반대! 2차 전국대학생 동맹휴업 및 행동의 날

4. 12

우리만화연대·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반전·평화 만화전' - 온라인 전시 : 2003. 4. 12부터 <http://newtoon.net/howar>
 4.12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 중단! 한국군 파병 철회! 한반도 전쟁 위협 반대! 4-12 국제반전평화공동행동의 날
일시 장소 : 4월 12일 오후 4시 서울시청광장(가) / 전국 각지

4. 13

민주노동당, 여성과 어린이가 함께하는 반전평화캠페인 및 문화공연
 천주교 평화연대, 2차 반전 평화 사진전 (서명 300여명, 모금 228,860원, 팸지 배포)

4. 15

문화연대, 이라크 난민 지원을 위한 <평화와 연대의 밤>
 경실련 등 33개 시민사회단체, '반핵반전 평화를 위한 시민네트워크' 구성, 출범. 이라크 난민돕기를 위한 시민네트워크' 결성, 이라크전에서 부상한 어린이 등 난민을 돕기 위한 모금운동과 구호활동, 의료지원활동 시작

4. 17

여중생범대위·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 한국군 파병 규탄 기자회견
 여중생범대위·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 이라크 전쟁 한국군 파병 규탄 공항 앞 시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무기장난감과 전쟁 폭력 게임 CD, 비디오 테이프를 평화의 선물로 바꾸어주기 행사
 천주교 평화연대, 이라크 전쟁 난민 돕기 성금 모금 시작

4. 18

전국민중연대 월례토론회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반전반미투쟁의 향후 방향'

4. 19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 즉각 중단과 한국군 파병 결정 철회를 위한 전국 대학 총학생회장단 4.19 선언
 살인미군 처벌! 부시 사과 소파 개정! 이라크 민간인 학살 미국 규탄! 한반도 전쟁위협 반대! 4.19 정신계승 145차 민족자주 반전평화 촛불행진 - 청소년 행동의 날 진행

4. 20

요르단 내 보건의료단체연합 소속 의료인 2인 의약품 싣고 바그다드 병원으로 출발 / 제2차 의료진 인천공항에서 출발
 (사)남북어린이어깨동무·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등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평화의 행진, 사랑해요 이라크 친구들' 행사 개최

4. 24

사회당, 노무현 대통령 전범 기소 청원 기자회견

4. 26

천주교 평화연대, "이라크 전쟁 난민에게 의약품을..." 포스터 발송

4. 28

공무원 노조, '이라크전 이후 미국의 세계 지배전략과 반전운동의 과제' 토론회

4. 29

평통사, 이라크 침략 전쟁 한국군 파병반대, 불평등 한미상호방위조약-SOFA 전면 개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용산 미군기지 조건없는 전면 반환 촉구 제 25차 국방부 앞 평화군축 집회 및 퍼포먼스

4. 30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이라크 한국군 파병 항의 집회" 성남 K16기지 정문

5. 7

반전운동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

5. 8

인의협 4차 이라크 의료지원단 출국

5. 9

대안연대회의의 정책포럼 : 이라크 파병의 정치경제학 이라크 전쟁과 파병 그 이후(Pentagon과 Wall Street)
 노무현 대통령 방미 관련 <한국 시민사회 각계 300인 선언>

5. 16

이라크돕기운동연합, 이라크에 희망을(hope for iraq) 기금 마련을 위한 거리 캠페인

5. 17

□ 인의협 5차 이라크의료지원단 출국

6. 7

□ 천주교 평화 연대 석일웅수사, 김재복 수사 이라크 파견 - 이라크 전후 복구 지원

6. 14

□ 보건연합 이라크 의료지원 보고회

6. 17

□ '이라크 전쟁 이후, 반전평화운동의 미래-This Summer, What is to be Done?' 토론회

6. 24

□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라크와 남북한 평화를 위한 문화제

7. 2

□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여중생 범대위, 한국 반전평화 운동의 평가와 전망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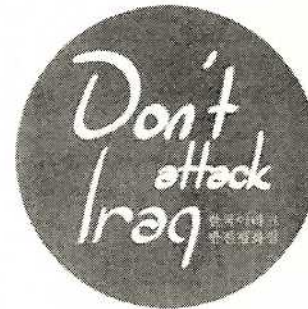
7. 22

□ 녹색연합, 이라크 민중지원연대 주최 '이라크- 평화의 증언, 고통의 나눔 (Witness from Iraq : Mrs. Suhad)' 전쟁의 참상을 직접 겪은 이라크 여성 Mrs.Suhad 방문, '평화의 증언'



4부 이라크반전평화팀 언론보도 정리

일간지/주간지/인터넷매체 시민단체소식지



4부 이라크반전평화팀 언론보도 정리

방송

SBS
MBC
YTN
RTV
KBS

일간지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기타일간지(노동일보,우먼타임즈,매일경제,굿데이)

주간지

한겨레21
시사저널
주간동아
주간조선
대학생신문
시민의신문
여성신문
뉴스앤조이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
다음미디어
연합뉴스

시민사회단체 소식지

참여사회
환경련
말
사람이 사람에게

*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였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라디오 부분은 정리하기 어려웠던 관계로 부득이하게 빠졌습니다. 매우 방대한 자료를 다 취합하지 못하여 많은 부분이 빠져 있음을 알립니다.

방송

<SBS>

국내 NGO 인사, 반전위해 이라크행 [사회, 02.07]

이라크반전평화팀 이라크행.

정부, 교민철수 준비.. 비상체제 돌입 [정치, 03.18]

교민대부분 철수, 비상체제 돌입한 가운데 반전평화팀 철수요구

시민단체, 이라크전쟁 중단 촉구 [사회, 03.20]

반전평화팀 성명냄. 반전평화팀의 안전을 보장하라는 내용

한국인 3명, 인간방패로 이라크 남아. [사회, 2003.03.20]

배상현씨에 대한 소식.



이라크에 한국인 4명 아직 남아있어 [정치, 03.20]

교민들은 거의 대피한 가운데, 반전평화팀 중 스물여덟살 배상현씨는 북 바그다드 발전소 38살 한상진, 29살 유은하씨 바그다드 일대에서 이라크 민간인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이라크전 압박.. 대책본부 긴급 가동 [정치, 03.20]

반전평화팀 아직 남아있음. 정부의 긴급가동

정부, 전 재외공관 등에 비상경계령 [정치, 03.21]

반전평화팀 남아있고 아직은 무사한 것으로 보임.

“한국인 인간방패 모두 무사하다” [사회, 03.21]

바그다드에 있는 한국인 모두 무사, 배상현씨와 전화인터뷰

재외공관 비상경계령.. 파병동의안 의결 [정치, 03.21]

반전평화팀 신변안전에 촉각을 세우고 있음.

미, 이라크 공습 재개..지상전 돌입 [신경식의 조간브리핑 03.21]

내 시신 찾지말라" 유서 미국의 폭격이 시작된 20일 '인간방패'로 활동 중인 '열린사회 희망연대' 회원 배상현(28·마산시 석전동)씨의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짐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지원연대 염창근 사무국장(28) "오후 8시쯤 이라크 시내에 머물고 있는 한상진(38), 유은하(29)씨와 통화

서울등 전국 곳곳서 반전집회 [사회, 03.22]



대학로, 반전평화팀 주최로 다채로운 행사

한국인 반전평화팀 무사 [국제 03.22]

반전평화팀 3명이 모두 무사한 것으로 전해짐.

반전평화팀 3명 '무사확인' [국제 03.22]

바그다드에 있는 3명 모두 무사확인.

한국반전평화팀 장시간 연락두절 [사회, 0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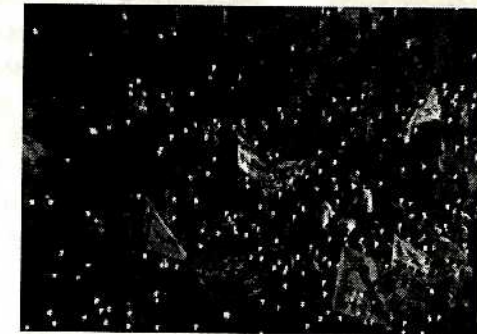
통신이 두절되어 장시간 연락두절.

반전평화팀 3명 '무사확인' [국제, 3.22]

바그다드 3명 아직 무사하다는 소식.

한국인 반전평화팀 바그다드 소식 전해와 [국제, 03.23]

폭격이 계속되는 바그다드 현지 모습 전함.



전국 곳곳에서 반전촛불집회 열려 [사회, 03.23]

반전평화팀등 계속 집회.

국내서도 '파병반74대'목소리 고조 [사회 03.24]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은 파병 반대와 평화를 기원하는 거리 미사를 열었습니다. 이라크에서 활동하던 반전평화팀 4명은 다시 국내로 돌아와 반전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김숙이/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 국내 반전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지금 한국군 파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일단 저지하기를 바라구요]

반전평화팀.. "바그다드는 걸전 준비중" (국제, 03.24)

한상진씨와 전화통화.

이라크 반전평화팀 4명 오늘 귀국 (사회 03.24)

24일, 전승로씨등 4명 귀국

"이라크군, 배상현씨 호텔에서 추방" (국제, 03.23)

유은하씨 홈페이지에서, 배상현씨 폭격장면 촬영하다 적발돼 추방. 폭격의 연속.

'인간방패 유은하씨가 전하는 현지 소식 (국제, 03.23)

유씨는 바그다드 시내 분위기가 매우 삼엄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군인들은 앞으로 있을 시가전에 대비해 바그다드 시내 여기저기에 모래 진지를 쌓고 있습니다.

바그다드 거리로 혼자 나가거나 폭격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체포나 추방을 자초하는 행동이라고 유씨는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때문에 어제(22일) CNN 방송팀이 바그다드에서 추방당했고, 뉴스위크 사진기자인 조성수씨도 이라크군에 쫓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대석] 반전평화팀의 허혜경씨 (사회, 03.24)



sbs 나이트라인.

질문>

1. 언제 귀국하셨습니다?
2. 이라크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다?
3. 출국 당시 오늘의 이런상황을 이라크 사람들은 예견하고 있었는가?
4. 현지에 남아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3명이 계시죠?
5. 남아있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안전하신것 같은데 통화가 안되죠?

6. 죽을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7. "후세인이 인간방패로 쓴다" 뭔가 이용당하는 감도 있지 않습니까?
8. 우리가 이라크인들을 위해 어떤일을 해줄 수 있을까요?
8. 다시 이라크에서 부른다면 돌아갈 생각이 있습니까?



파병안 철회! 국내 반전시위 확산 (사회, 03.24)

반전평화팀 2명은 한강대교시위



반전평화팀 회원 한강대교서 시위 (사회, 03.25)

은국씨, 현종씨 한강대교 위서 파병반대 기습시위

"숨쉬기 힘들어요"... 반전평화팀 전언 (국제 0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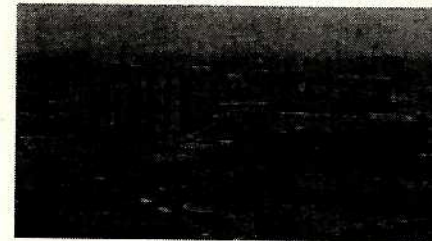


유은하씨의 홈페이지에서 소식.

"바그다드 상공 시커먼 연기로 덮여" (국제 03.26)

유은하씨 홈페이지에서 바그다드 소식 전함.

반전평화팀, "외부소식 알기 힘들어" (국제, 03.27)



연기로 뒤덮여 외부소식은 더욱 알기 힘들다는 배상현씨 소식, 한상진, 유은하씨는 정수장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

배상현씨, "바그다드는 온통 피바다" (국제, 03.28)

배씨는 바그다드 시내가 온통 피바다이며 하늘은 온통 검은 연기로 가득 차 있고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폭격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전함.

인간방패 배상현씨 요르단 암만 도착 (국제, 03.31)

배상현씨가 바그다드에서 나와 암만에 도착.

인간방패 배상현씨, "파병하면 국적 포기" [국제, 03.31]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가 이라크전에 파병할 경우 모두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짐.

반전평화팀 6인 이라크행 예정 [국제 04.01]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신성국 신부 등 6명이 이라크로 들어갈 예정이라는 소식

인간방패 배상현씨 곧 귀국할 듯 [국제 04.01]

희망연대는 "배씨가 미군 공습 등 전쟁 참상에 대한 증거 수집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데다 부상을 당해 귀국 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하고 "귀국후에는 반전 활동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는 내용.

[종군기자] 반전평화팀 3명 바그다드로 출발 [국제, 04.02]

박기범, 서의운, 신성국씨 바그다드로 출발

반전평화팀 3명 바그다드로 출발 [국제 04.02]

동일 내용.

신성국신부, 바그다드로 떠나 [국제, 04.02]

한국.이라크 반전평화팀의 신성국 신부와 박기범씨, 서의운씨 등 3명이 한국시간 2일 오전 8시 요르단으로 떠나 바그다드로 향함.

시민단체, '파병취소' 헌법소원 제출 [04.03]

이라크에서 인간방패 활동을 하다 귀국한 배상현씨와 임영신씨는 반전평화팀 회원들과 함께 청와대로 찾아가 파병동의안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했다는 소식.

시민단체, '파병'위헌심판도 청구 [사회, 04.03]

배상현씨 항의서한 전달.

'인간방패' 배상현씨 오늘 귀국 [사회, 04.03]

3일 오전 귀국소식,

'인간방패' 배상현씨 귀국, "국적포기" [사회, 04.03]

국적포기 의사 밝힘.

[초대석] 반전평화팀 임영신씨가 전하는 이라크전 [사회 04.04]

1. 반전평화팀 귀국했는데 어려움은 없었는지?
2. 남아 있는 반전평화팀의 활동은?
3. 두 아이의 엄마로서 활동하기가 쉽지 않았을텐데?
4.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뜻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5. 국적 포기로 감수해야 할 것도 많을텐데?
6. 앞으로의 계획은?



반전평화팀, '파병철회' 천막농성 [사회, 04.08]

명동성당 앞 무기한 농성

'반전평화팀' 유은하씨가 전하는 실상 [국제, 04.08]



난민구호활동벌이는 유은하씨.

유은하씨 :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사, 특히 당장 수술에 들어 갈 수 있는 외과 전문의와 의약품 그리고 발전 시설과 산소 공급기를 고루 구입할 수 있는 재정을 지금 보내주시십시오. 지금이야 말로 전쟁의 고통을 함께 짊어져야 하는 때입니다. 제발 도와주시십시오.

서울 곳곳서 파병반대 기습시위 [사회, 04.17]

광화문, 교보문고 옆 누워서 파병반대 시위

<MBC>

<프로그램>

우리시대 2003년 03월 13일 제91회

우리시대 기획특집, 전쟁입박! 이라크로 간 인간방패.

아주 특별한 아침 제764회 2003년 03월 24일

전쟁 발발 5일째, 지금 이라크는. 미군의 바그다드 공습, 3월 20일

아주특별한 아침 제765회

이라크 전쟁 속보

아주특별한 아침 2003년 04월 04일 제773회

1. 이라크전 이라크전 속보정리 / 인간방패 배상현 귀국 3일

<뉴스>

이라크 전쟁반대 시민단체 출국 2003.02.07

반전평화팀 지원연대 소속 시민단체 회원 3명이 이라크 전쟁을 저지하고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출국.

국내 대구모 반전평화 시위 2003.02.15

여중생범대위, 공동실천등 반전평화 집회

이라크 반전평화팀 2진 출국 2003.02.16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며 인간방패를 자원한 한국이라크 반전평화팀 2진이 16일 인천공항 통해 출국. 2진에는 여성운동가 허혜경씨, 양심적 병역거부자 은국씨, 여대생 전승로씨, 성혜란씨 등 4명

이라크 반전평화팀 출국 2003.02.22

이라크 반전평화운동 구호활동 벌이기 위해 결성된 한국이라크 반전평화팀 4진이 출국.

이라크 등 위험지역 교민 3백여명 체류 2003.03.17

현재 교민은 311명이라고 외교부가 밝힘. 또한 반전평화팀으로 활동을 하는 한국인이 모두 10명이고 현재 요르단에 9명, 이라크에 1명 체류중. 자진철수를 요구하고 있음.

한국인 인간방패, 이라크 발전소 머물러 2003.03.20

인간방패 자처하며 이라크에 들어간 반전평화팀 중 3명이 이라크에 남아 있음.

인간방패 배상현씨, 반전평화팀 합류 2003.03.21 10:45 (박찬정기자)

북부발전소에 머물던 28살 배상현씨가 한상진, 유은하씨와 합류했다고 밝힘.

이라크 잔류 한국인 4명 안전확인 2003.03.21

이라크에 체류중인 반전평화팀은 안전한 것으로 확인.

하늘색 리본달기 운동 2003.03.21

인터넷과 거리선전 등을 통해 평화를 상징하는 하늘색 리본달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이라크 반전평화팀 지원연대 소식.

이라크전 인간방패 3명 안전확인 2003.03.22

이라크에 들어간 이라크 반전평화팀이 알파나르 호텔에 안전하게 대피해 있는 것으로 확인.

주말 반전평화 집회 잇따라 2003.03.22

이라크전쟁이 시작된 뒤 첫 주말을 맞아 서울에서 대규모 반전평화집회가 잇따라.

“공습부장자와 함께 들었다.” 2003.03.25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인간방패로 동참하고 있는 유은하씨가 25일 오전 짙막한 e-메일을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보내 현지소식을 전했다.

정의구현 사제단, 반전평화활동 출국 2003.03.26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소속 신성국 신부가 이라크에서 반전, 평화활동을 벌이기 위해 26일 요르단으로 출국.

파병반대 시위에 과잉진압 항의 2003.03.27 07:05

경찰의 과잉진압에 항의하는 대학생 시위, 바그다드에 인간방패를 보낸 반전평화팀은 대학로에서 촛불시위를 광화문 집회와 따로 가졌다.

배상현씨 바그다드 참상 e-메일 전해 2003.03.28

이라크 바그다드서 활동하고 있는 인간방패 배상현씨가 이메일을 통해 바그다드 참상을 전함.

전쟁중단, 파병반대 움직임 잇따라. 2003.03.31

파병동의안 국회처리를 앞두고 대학생들이 동맹휴업 발표, 각계 인사들이 명동성당서 다음달 12일까지 철야농성 벌이기로.

배상현씨등 귀국, 국적포기 선언 2003. 04.03

배상현, 임영신씨가 귀국하며 국적포기 선언.

한국반전평화팀 청와대 항의서한 전달 2003.04.03

3일 귀국한 인간방패 배상현씨 등반전평화팀은 파병결정을 철회하는 내용을 담은 항의서한을 청와대 비서실에 전달하고 노무현대통령과 면담을 신청했다.

인간방패 배상현, 임영신씨 국적포기 2003.04.04

이라크에서 활동한 배상현씨와 임영신씨는 한국에 귀국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국적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임의로 국적포기는 불가능 2003.04.04 07:32

헌행법상 우리나라 단일국적을 가진 사람이 임의로 국적을 포기할 수 없게 되어 있음. 따라서 배상현씨등의 국적 포기 선언은 선언적 의미만 있을뿐 법률적으로는 불가능.

귀국 반전평화팀, 파병결정 철회촉구 2003.04.08

이라크와 요르단에서 인간방패 활동하고 귀국한 반전평화팀원 9명의 8일 오후 명동성당 기자회견을 갖고, 전쟁중단과 파병결정 철회 촉구.

오늘 도심서 보-혁 동시 집회 2003. 04.19 11:04

반핵반값 자유통일 청년대회 / 반전집회, 한국반전평화팀 소속 인간방패의 발언순서.

<YTN>

전쟁나도 이라크 남는다 'ytn, tv뉴스' 2003년 03월 18일 16:54

이라크 전쟁이 발발해도 평화팀 3명은 이라크 현지에 남아 있을 것으로 보임. 오김숙이 팀장은 ytn '2시 뉴스의 현장'과의 인터뷰에서 이라크 공습이 시작되더라도 반전평화팀원 3명은 이라크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이야기.

이라크 교민 전원 철수 'ytn, tv뉴스' 2003년 03월 19일 17:55

이라크에 남아있던 한국교민 5명이 모두가 철수했고, 취재진, 반전평화팀 일부가 어제 요르단으로 철수했다는 내용. 이에 따라 이라크에는 한상진씨를 포함 3명만 남아있는 상태.

이라크 교민 전원 철수 'ytn, tv 뉴스' 2003년 03월 19일 17:55

이라크 바그다드에 남아있던 교민 모두 철수, 반전평화팀 한상진씨, 취재진 조성수 기자 4명만 남아있는 상태.

정부, 비상태세 돌입 「ytn, tv 뉴스」 2003년 03월 20일 14:26

이라크전이 시작됨에 따라 비상사태에 돌입. 정부종합청사에서. 정부담변 中. 이라크 쿠웨이트 이스라엘 등 위험 국가의 교민 1100여명 가운데 75%가 철수, 290여명이 남아 있고 이라크는 바드다드에서는 모두 철수했으나 반전 평화팀과 사진기자 4명이 남아있어 정부가 이들에게 철수를 강력히 독촉하고 있다는 내용.

이라크한국인 셋 연락 끊겨 「ytn, tv 뉴스」 2003년 03월 22일 10:55

바그다드에 머물던 유은하 한상진씨, 배상현씨 연락두절 상태.

배상현씨 호텔에서 추방돼 「ytn tv뉴스」 2003년 3월 24일 13:54

인간방패로 활동하던 배상현씨가 폭격장면 촬영하다 이라크 당국에 의해 호텔에서 추방당했다는 내용.

한상진씨 요르단 도착 「ytn, tv뉴스」 2003년 04월 02일 08:43

인간방패 활동을 벌이던 한상진씨가 무사히 암만에 도착했다는 소식.

반전평화팀 난민구호 주력 「ytn, tv뉴스」 2003년 04월 03일 09:57

반전평화팀은 앞으로의 활동을 반전에서 점차 난민구호쪽으로 전환시켜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
한상진씨, 최혁씨 인터뷰

인간방패 배상현씨 귀국 「ytn, tv뉴스」 2003년 04월 03일 14:17

인간방패 활동하던 배상현씨가 인천공항 통해 귀국했다는 소식.

<RTV>

내가 전쟁을 반대하는 이유1

-한국반전평화팀 지원자인 은국씨와 일반시민들의 이야기 <RTV 방송> 2003/3/21

은국의 전쟁

-은국과의 인터뷰 <RTV 방송> 2003/3/28

<KBS>

[뉴스 9]주요 시설 인간 방패로 지킨다

●앵커: 반전 평화팀 일원으로 지금도 이라크 바그다드에 남아 있는 우리나라의 배상현 씨가 전자우편을 통해서 현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최규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

등록일 : 2003/03/28 21:00

반전 평화운동 배상현 씨 귀국 결정

사회 정재준

반전 평화 운동을 위해 이라크 바그다드에 머물다 부상으로 요르단 암만으로 빠져나온 배상현씨가 오는 3일쯤 귀국합니다. 마산 열린사회희망연대 김영만 상임대표는 오늘 이라크 반전평화팀 배상현씨 ...

등록일 : 2003/04/01 11:18

[뉴스 9] 인간방패 배상현이 본 바그다드 10일

●앵커: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인간방패 활동을 해 왔던 배상현 씨가 오늘 요르단 암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전쟁의 참상과 함께 이라크의 결사항전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정창준 특파원이 전합니다. ●기자: ...

등록일 : 2003/04/01 21:00

한국인 반전평화팀 3명 바그다드 추가 합류

요르단 암만에 있던 한국 반전평화팀 3명이 오늘 추가로 이라크 바그다드로 출발했습니다. 인간방패 배상현 씨를 파견한 마산의 열린사회희망연대 측은 오늘 배 씨가 전화통화를 통해 암만에 있던 신성국, ...

등록일 : 2003/04/02 11:38

인간방패 반전 평화운동가 3명 이라크 입국

한국,이라크 반전평화팀 소속 반전 평화운동가 3명이 현지 시간으로 오늘 새벽 이라크로 출발했습니다. 한국,이라크 반전평화팀은 동화작가인 31살 박기범씨와 신부 신성국씨, 학생 23살 서의운씨 등 3명이 ...

등록일 : 2003/04/02 16:43

휴일 반전 집회 잇따라

●앵커: 오늘 휴일을 맞아 반전집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이라크 반전평화팀 지원연대는 오후 2시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평화의 켈게그림 그리기와 노래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등록일 : 2003/04/05 09:30

휴일 반전집회 활기

오는 12일 범국민 결의대회를 앞두고 송고르기에 들어간 시민사회단체들의 반전집회가 휴일을 맞아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이라크 반전평화팀 지원연대는 오후 2시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평화의 켈게그림 그리기와 노래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등록일 : 2003/04/05 07:19

일간지

<경향신문>

[인물과 화제] '인간방패' 오김숙이씨 이라크행 [속보,인물] 2003.02.16 (일) 18:51

전쟁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어린이에게 큰 희생을 강요 여성해방연대 소속 여성운동가 오김숙이씨(34) 이라크 행 보도

[불만한 프로] 3월 13일 [속보, 연예] 2003.03.12 (수) 16:51

이라크로 간 인간방패들 -교양 '우리시대' mbc 오후 7:20 인간방패 보도

[독자의 소리] '맞춤형 노숙자 대책' 강구해야 [속보,칼럼] 2003.03.114 (금) 18:48

[이라크전] 중동 위험지역 교민 75% 대피 [속보,정치] 2003.03.20 (목) 19:15

노, 정치경제 '밀착대응 25시' [속보,정치] 2003.03.21 (금) 19:18

전쟁발발하면서 인간방패에 대한 안부를 물었다는 기사.

바그다드 인간방패 배상현씨 매일 보내

인간방패 배상현씨가 경남 마산의 열리사회회망연대로 보낸 메일에서. 전쟁이 시작돼 전쟁을 막겠다는 인간방패 로서의 의미가 사라졌다고 판단하고 변전소에서 빠져나왔다는 내용

<국민일보>

'이라크인간방패' 2진 4명 출국 (02.16)

16일 '인간방패'를 지원한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소속 2진 4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는 소식

[하이라이트]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03.12)

반전평화팀 영상. mbc우리시대 방영

[이라크전 초읽기] "제발 아무일 없었으면.." (03.19)

이라크에 남아있는 유은하씨 가족.

[이라크전 초읽기] 한국인 인간방패 배상현씨 (03.19)

북바그다드에 배치될 배상현씨.

"한반도 영향 얼마나.." 걱정 (03.20)

반전평화팀 지원연대 미대사관 앞 기자회견, 전국10여개 지역에서 전쟁반대 기자회견, 집회이어짐

[미국, 이라크 공격] 청와대 총리실 외교부 스캐치 (03.20)

반전평화팀 3명 잔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교민들 대책

이라크전 시민반응 및 반전운동 확산 (03.20)

이라크 반전평화팀 지원연대도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

"지축이 요동쳤다".. 이라크 첫바그다드 공습순간 (03.20)

배상현씨가 발전소로 지원, 유은하씨의 소식

시민단체 '전쟁반대' 계속 (03.21)

반전평화팀으로 활동한 은국씨 참석. 청년한의사회

"전쟁소식 바로 전달".. 인터넷 위력 (03.21)

인간방패로 지원한 배상현씨가 무사히 돌아왔던 것. 반전평화팀 홈페이지서 즉각 확인

[사실] 파병 철회 요구 적절한가 (03.21)

파병 또한 국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파병철회 요구는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의 사설.

반전평화팀 유은하씨가 전한 22일 바그다드 (03.23)

유은하씨 자신의 홈페이지에 현지 소식 전함.

인간방패 배상현씨 e-메일 현지소식 전해 (03.23)

경남 열리사회회망연대에 현지소식전함

파병 규탄, 반전시위 계속 (03.23)

이라크 반전평화팀 파란색 리본나뉘며 반전집회.

"병원도 폭격위험" 현지 반전활동 배상현씨 전화 (03.24)

배상현씨 전화, 민간인 폭격.

반전운동 3인 들기 모금활발 (03.24)

전국에서 모금활발

반전평화팀 최병수씨 (03.24)

바그다드, 바스라에 머물며 반전활동 펼침. 일문일답

이라크 반전평화팀 4명 귀국 (03.24)

오김숙이, 전승로, 이해중, 최병수씨 4명이 인천공항 통해 귀국

[이진곤 칼럼] 전쟁 (03.25)

다만 반전 운동이 또 하나의 악(惡)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부시가 후세인을 악으로 규정하고 공격한 것을 두고 비판해온 평화주의자들이 만약에 부시를 악으로 규정한다면 도덕적 명분은 퇴색하고 만다. 이 같은 대결 의식이 자주 격렬한 마찰을 빚고 가끔은 전쟁의 요인이 된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전쟁 억제를 위한 방안으로서 평화 구조(즉 유엔)의 강화보다 효과적인 것은 없다. 지금 유엔이 끝없는 논쟁과 세력 과시의 장이 되고 만 까닭은 강대국들의 이기주의에도 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조직 및 운영상의 미비점에도 있다. 반전 운동과는 별도로 유엔이 영향력과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와 노력이 지금 바로 기울여지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

"미국의 양심 위한 난민구호는 안돼" (03.28)

임영신씨, 자신의 홈페이지 통해 난민촌 현지 모습 전함

반전운동 신성국 신부 요르단서 첫 소식 전해 (03.29)

반전평화팀에 합류

[사진뉴스] 바그다드 '한글시위' (03.29)

배상현씨 e-메일에서.

“이라크난민들자” 인터넷 온정 밀물(03.30)

유은하씨가 동호회 사이트 싸이월드에서 반전캠페인과 평화기금 모금운동별이고 있음. 모금운동활발

이득수씨가 전한 난민상황 (03.30)

국제기아대책기구 이 본부장은 "암만을 떠나기 전날 요르단 대학앞에 있는 한 인터넷 카페에서 우연히 한국 반전 평화팀을 만나 앞으로 한국인으로서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전함.

이라크반전평화팀, “파병하면 한국국적 포기” (03.31)

배상현씨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e-메일 받음

[미-이라크전쟁] 인간방패 배상현씨가 전하는 참상 (03.31)

배상현씨가 보고서를 통해 전쟁참상 고발

암만 반전평화팀 3명 바그다드로 출발 (04.02)

배상현씨를 파견한 열린사회희망연대측, 신성국, 박기범 서의윤등 3명이 2일 새벽 2시 바그다드로 출발.

시민단체, 이라크파병 헌법소원 제기 (04.03)

인간방패로 활동하다 이날 귀국한 배상현씨, 항의서한 청와대 수석실에 전달.

“전쟁상처 치유, 이라크로..” (04.10)

반전운동에서 한국이라크평화팀 지원연대와 본격적인 난민구조활동

[행복한 가정, 건강한 예배] 오늘의 구원을 이루라 (04.16)

유은하양에 대한 이야기, 선교사로 헌신한 자매..

[기독교단신]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윤남중)의 (05.22)

반전평화팀 임영신씨 강사로 나서 이슬람교의 참모습에 대해 듣고 이해하는 시간.

전쟁최대 피해자는 여성과 아이들 (07.23)

수하드씨가 임영신씨 초청으로 시민단체 방문, 실상 증언

<동아일보>

[이라크전] “공습부상자와 함께 울었다” 03/03/25 14:23

[이라크전쟁] 배상현씨 ‘바그다드’ 참상 e-메일 전해 03/03/28 14:02

[이라크전] “부시, 블레이크 전범고소 준비중” 03/03/28 14:40

[이라크전] 배씨, 전쟁증언위해 사선 넘어 03/03/30 22:25

[이라크전] 배상현씨 ‘5일간의 전쟁참상’ 고발03/03/31 09:44

[이라크전] 배씨 “공습강화로 민간지역 피해” 03/03/31 10:51



[이라크전] 인간방패 배상현씨 3일 오전 귀국 03/04/01 15:18

[이라크전] 신성국 신부 등 한국 인간방패 이라크 입국 03/04/02 10:56

[이라크전] ‘파병시 국적포기’ 네티즌 공방 03/04/03 14:27

[인터넷 광장] ‘인간방패’들의 국적포기 선언 03/04/09 18:41

[오늘의 이슈] ‘인간방패’ 배상현씨 한국국적포기 파문 03/04/03 18:23

<문화일보>

이라크 ‘인간방패’출국 [속보,사회] 2003년 02월 08일 (토) 11:54

국내 반전시민단체 인사들이 이라크 현지로 출국.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소속3명 7일 오후 인천 국제공항 통해 이라크로 출발.

“부당한 전쟁 온몸으로 막겠다” [속보,사회] 2003.02.15 (토) 11:36

2진으로 이라크로 출국하는 허혜경씨등 인터뷰.

반전운동 달아온다 [속보, 사회] 2003. 03.18 (화) 14:00

대학 이라크평화팀, 이화여대 총학생회 등 반전운동이 달아오르고 있음.

세계 주요현장서 활동 비쁜 최병수씨 바그다드 한복판에 ‘반전걸개그림’ [속보,인물] 2003. 03.17 (월) 12:18

자유광장에서 함께 온 반전평화팀 멤버들과 함께 반전 메시지를 담은 걸개그림을 설치하고 있다.

바그다드 한국인 23명 철수 [속보,세계] 2003.03.18 (화) 12:21

취재진 15명과 반전평화팀 8명이 바그다드에 머물고 있으며, 요르단 주재 한국대사관은 이라크 에 체류중인 한국인들을 긴급철수시키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는 중.

‘파병안된다’ 반전운동 확산 [속보,정치,사회] 2003.03.21 (금) 13:21

반전평화 여성행동, 반전평화팀 지원연대도 미대사관 앞에서 1인시위 벌임.

폭격에 호텔 ‘흔들’ .. 시기는 적막 [속보,세계] 2003년 03월 21일 (금) 13:21

한상진, 배상현, 유은하씨 모두 무사. 배상현씨 와 한상진씨 mbc 전화 인터뷰

‘인간방패’ 등 3인과 끝까지 겨뤄 [속보,인물] 2003.03.22 (토) 12:21

‘금주의 인물’ 선정에서. 조지부시, 혹은 사담후세인, 그리고 인간방패

한국이라크 평화팀은 2달여전 구성.. 국내 반전 이끌어 [속보, 건강/생활] 2003.03.24 (월) 10:00

한국이라크 반전평화팀이 국내 반전평화운동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음.

“이름으로 전쟁 막을 수 있다면...” [속보, 건강/생활] 2003년 03월 24일 (월) 10:00

인간방패가 벌이는 반전평화운동은 주판알 튀기기에만 골몰해있는 분위기와 다르고, TV 생중계와 또 다르다. IPT 전반적 소개 및 전쟁 중 소식 전함.

“후세인 카운 것은 미국” [속보, 건강/생활] 2003.03.24 (월) 14:21

미국의 이라크 공격과 경제제재가 후세인을 키웠다. 반전평화팀이 현지에서의 활동을 고집하는 이유는 현지의 긴박함과 참상을 알려야 한다는 것.

생활속 반전운동 뜨겁다. [속보, 사회] 2003.03.25 (화) 15:39

국내 반전운동이 활발해짐. 이라크에 사람들을 파견하고 있는 반전평화팀이나 유니세프 등으로 3000만원의 성금이 모였다는 소식.

한국국적 포기할까 [속보,사회] 2003.04.02 (수) 14:42

이라크반전평화팀 내부에 국적포기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배상현씨 등 반전평화팀 9명은 30일 파병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국적포기각서를 전달할 예정.

“살아있음이 부끄럽다” 폭격속 바그다드서 생일 맞은 유은하씨.

전화, 이메일등 모든 통신이 두절된 상태의 이라크, 스물아홉번째 생일을 맞은 유씨의 소식.

금주의 인물 소사 - 김희정 간호사 외 [속보,인물] 2003.04.05 (토) 12:21

이라크에서 자원의료봉사활동중인 김희정 간호사, 한국아나뎀티스트 센터의 유은하씨.

금주의 인물 어떻게 선정했나 [속보,인물] 2003.04.05(토) 12:21

한상진씨가 후보에 끼였다는 내용.

“유혈 남자한 거리, 미국인들은 보라” [속보,사회] 2003.04.07 (월) 12:21

유은하씨가 5일 미군의 바그다드 진격을 앞둔 긴박한 상황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림.

“파병 따라가 김치라도 답글래요” ‘일용임니’ 김수미씨 [속보, 인물] 2003.04.09 (수) 13:21

파병결정 지지한 김수미씨, 반전평화팀이 인간방패로 이라크 간 것처럼 자신도 뜻을 실현하기 위해 가고 싶다고 밝힘.

〈포럼〉 다양성 왜 포용 못하나 [속보,칼럼] 2003. 04.12 (토) 11:42

사회가 많이 변해 나라의 이익, 국적 등의 문제보다 좀더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회의 파병동의안 절차에서, 인간방패들의 국적포기 선언에서.

이라크 구호 의료진 2명 첫 출발[속보,사회] 2003.04.12(토) 12:03

출국하는 의사들, 임영신씨와 반전평화팀이 요청해 온 약품과 함께.

“평화를 순교를 요구한다” [속보, 건강/생활] 2003.04.16 (수) 10:

신성국신부에 대한 이야기.

금주의 인물 어떻게 선정했나. [속보, 인물] 2003. 04.19 (토) 21:10

지난달 14일부터 한달이 넘게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인간방패로 반전우동을 하다 전쟁이 끝나고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는 유은하씨.

〈평화캠페인- 인물100인〉 어떤 사람 뽑았나 [속보,사회] 2003. 05.31 (토) 11:51

유은하, 배상현씨 등 선정.

〈평화캠페인〉 1020세대 ‘반전-평화’ 운동 기수로 [속보, 생활/문화] 2003.06.03 (화) 11:09

1020세대들의 반전운동의 양식이 바뀌어가고 있다. 이는 반미컴플렉스나 국익이 아닌, 일상에서의 눈으로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 인터넷매체도 활발. 반전평화팀 일원으로 이라크서 활동했던 박기범이라크 통신이 그에

〈평화인물〉 폭격때도 바그다드 남아 ‘참상’ 알린 반전평화운동가 유은하씨. [속보,인물] 2003. 06.09 (월)

12:51

바그다드 폭격이 쏟아질때에도 인간방패로 남아 전쟁의 참상을 알림.

“이라크 의사를 총 들고 병원지키며 진료” 통역 압둘카림씨 [속보, 인물] 2003.07.23 (수) 15:57

압둘카림씨, 한국의 NGO활동을 앞으로 이라크에도 전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힘.

<세계일보>

주말 반전-노동시위 잇따라 [02.16]

인간방패를 지원한 허혜경씨등 16일 이라크로.

이라크로 간 한국반전평화팀 [03.12]

mbc 우리시대 방영.

[tv 하이라이트-15일] MBC 죽도록 사랑해 외..

반전평화팀 이라크 밀착취재. iTV 시대공감 르포.

한국인 1명 이라크 인간방패 배치 [03.19]

배상현씨. 이라크 현지 인간방패 지원.

긴급각의... 비상령.. 국내도 긴박 [03.20]

정부의 긴박함. 반전평화팀 3명 이라크 체류중.

“주민들 걸프전때보다 더 당황”

박기범씨의 메일에서.

폭탄세례-불기둥 ..생지옥 방불 [03.23]

배상현씨도 폭격장면 촬영하다 추방, 유씨의 현지소식

“티그리스강 건너편은 화염에” [03.23]

배상현씨의 소식.

반전평화팀 7명 귀국. 이라크 현지 3명 잔류 [03.24]

7명이 현지활동 마치고 귀국했다는 소식

바그다드 반전평화팀활동 유은하씨 바그다드서 e-메일 8신 [03.28]

유은하씨 홈페이지에서 8번째 바그다드 소식 전함

파병결정 취소 헌법소원 [04.03]

귀국한 배상현, 임영신씨가 파병결정에 반대해 헌법소원 전달

[종교] 평화염원 십자가 지겠다. [04.10]

이라크행 신성국 신부, 사막행군 나섰다는 기사.

정신대 수요집회 참석한 이라크 여성 “위안부 할머니들의 깊은 상처 공감” [07.23]

임영신씨의 초대로 온 압둘카림씨.

<조선일보>

국내 6개 도시서 대규모 반전시위 [조선일보/사회 2003.02.15]

반전시위 현장에서 허해경씨등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2진 팀원들이 참여.

바그다드 주재 외국 공관원 60%철수 [조선일보/국제 2003.02.24]

세계서 온 반전평화운동원들과 인간방패 자원자들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이라크를 빠져나가고 있음.

[이규태코너] 인간방패 [조선/사설칼럼 2003.02.28]

인간방패의 기원에 대한 설명.

“지금 이라크에 모여든 이 방패들에게 이라크 정부는 모든 편의를 보아주고 숙식과 교통을 전부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고 있다. 운동의 순수성을 훼손시킨다고 하여 일당 5달러씩 내지는 의견도 있었으나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니 평화의지가 전략에 이용당한 듯한 느낌도 없지 않다.”

[팔면봉] 자꾸 그러면 점점더 궁금해지지요 [조선일보/정치 2003.03.03]

이라크 전쟁막을 인간방패, 자원자 점차 줄어들.

“남 살리려고 나 죽겠다는 사람 많잖은 세상...”

‘이라크 반전평화팀’ 2명 귀국 [조선일보/사회 2003.03.11]

허해경씨 은국씨. 귀국 기자회견, 한국에서 반전열기의 확산에 일조하기 위해 귀국.

[방송] 발견! 이 채널 / EBS TV ‘역사 다큐멘터리’ [조선일보/문화 2003.03.12]

MBC 우리시대 방영 정보

“한국인반전팀 3명, 전쟁나도 이라크 남는다” [조선일보/사회 2003.03.18]

반전평화팀 3명, 이라크현지에 남을 계획밝힘

[시민활동가] 끝내 이라크에 남은 ‘한국인 인간방패’ [조선일보/사회 2003.03.19]

배상현씨의 인간방패 합류, 북바그다드 발전소에 남을 것이라는 이야기.

[한국이라크 반전평화팀 항후 진로] [조선일보/국제 2003.03.19]

지원연대에 따르면 반전평화팀원중 3명은 이라크현지에 남기로 결정하기로, 요르단 구호활동

[이라크전] 현지업체 “전직원이 방독면 준비” [조선일보/경제 2003.03.20]

현지교민들은 거의가 대피, 인간방패팀 배상현씨, 이라크평화팀 유은하, 한상진 조성수씨가 남아있다는 보도.

[이라크전] 시민단체, 전쟁중단 촉구 [조선일보/사회 2003.03.20]

반전평화팀, 지원연대도 성명을 통해 전쟁중단 촉구.

[이라크전] 교민철수 독려 [조선일보/사회 2003.03.20]

배상현씨 인간방패 활동중. 철수권유에도 응하지 않고 있고 현지에서 철수를 독려하고 있다.

정부, 이라크전 비상태세 돌입 [조선일보/정치 2003.03.20]

한상진씨 등 반전평화팀 3명 체류중 상태. 전쟁발발되면서 정부는 비상태세 돌입.

[이라크전] ‘인간방패’ 배상현씨 가족 생사물라 애태워 [조선일보/사회 2003.03.20]

가족들이 이라크로부터 배상현씨의 생사가 전해지지 않아 애태우고 있다는 소식

[이라크전] 경실련-민중연대-참여연대의 반전시위 [조선일보/사회 2003.03.21]

반전평화팀지원연대는 이날부터 미대사관 앞 1인시위

[이라크전] 바스라 지상전에 투입된부대는? [조선일보/국제 2003.03.21]

인간방패 배상현씨 무사하다는 소식. 다른 전쟁 소식.

‘인간방패’ 배상현씨 바그다드서 생존 [조선일보/사회 2003.03.21]

배상현씨가 오전 MBC와의 인터뷰에서 생존해있다고 알려음.

[이라크전] 정부, 재외공관 테러경계령 [조선일보/정치 2003.03.21]

반전평화팀 3명과 사진기자 1명의 이라크 체류 한국인에 대해 외교부가 안전확인.

[이라크 남은 3명 근황은] 한상진씨 “내 시신 찾지말라” 유서 [조선일보/사회 2003.03.21]

배씨의 생존소식, 한상진씨의 이야기.

[이라크전] '인간방패' 배상현씨 무사 [조선일보/사회 2003.03.21]

배상현, 한상진, 유은하 모두 바그다드 시내에서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음.

[이라크전] 시민단체 '전쟁반대' 목소리 이어져 [조선일보/사회 2003.03.21]

한외사회 기자회견, 은국씨도 참석.

[이라크전] 반전평화팀 장시간 연락두절 [조선일보/사회 2003.03.22]

연락두절, 22일 새벽 대규모 3차 공습 피해 안전지대로 이동했을 가능성.

[노대통령] "시민단체 반전시위 무리하게 진압말라" [조선일보/정치 2003.03.22]

노대통령이 인간방패 소식을 물었다는 보도.

인간방패 유은하씨가 전한 22일 바그다드 [조선일보/국제 2003.03.22]

폭격중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기력감을 느낀다는 유은하씨.

[인간방패 배상현씨] "햄버거-계란2개로 버텨" [조선일보/사회 2003.03.23]

인간방패로 활동하던 배상현씨와 유은하씨의 생생한 현지 체험.

"이라크에 빨리 평화왔으면.." [소년조선 2003.03.23]

'학사모'가 마련한 어린이 토론회에서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오기를 바라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으며 박기범 씨 통신에 대해 언급.

[바그다드 '반전평화팀' 유은하씨의 일기 [조선일보/국제 2003.03.23]

유은하씨의 현지체험을 홈페이지를 통해 전해옴.

[이라크전] 인간방패 배상현씨 e-메일 현지소식전해 [조선일보/사회 2003.03.23]

현지에서 이메일로 소식을 전함

[반전평화팀] 바그다드서 13세 소녀 생일파티 [조선일보/국제 2003.03.24]

[국내 구호단체들] "이라크 난민돕자" [조선일보/사회 2003.03.24]

반전평화팀 지원연대도 2월부터 꾸준히 이라크 난민지원사업 벌여옴

[인터뷰] 반전평화팀 최병수씨 [조선일보/사회 2003.03.24]

반전평화팀에 대한 인터뷰. 걸개그림 등.

[반전평화팀 유은하씨 인터뷰] "정수시설 지켜려 근처서 텐트합숙 [조선일보/사회 2003.03.24]

기자와의 통화 인터뷰에서 현지소식 알림.

이라크반전평화팀 4명 귀국 [조선일보/사회 2003.03.24]

오갑숙이씨, 전승로, 이해중, 최병수씨 24일 귀국. 반전평화팀 지원연대와 함께 국내활동도 열심히.

한강대교서 기습 반전시위 [조선일보/사회 2003.03.25]

반전평화팀 소속 은국씨와 현종씨가 25일 11시 한강대교 아차 위에서 기습 반전시위 벌임.

유은하씨 "공습부상자와 함께 울었다" [조선일보/국제 2003.03.25]

유은하씨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현지소식을 전함.

반전평화팀 유은하씨가 전한 25일 바그다드 [조선일보/국제 2003.03.26]

바그다드 폭격소식, 자신은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

유은하씨 "바그다드 상공 시커먼 연기로 덮여" [조선일보/국제 2003.03.26]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바그다드 공습 이야기.

반전평화위헌 새 촛불시위 제안 [조선일보/사회 2003.03.28]

허혜경씨가 마로니에에서 새 촛불을 들시다. 라고 이야기한 내용

[이라크전] 반전평화팀 유은하씨 "부시,블레어 전범고소 준비중" [조선일보/국제 2003.03.28]

이라크에서 고소작업 준비.

[이라크전] 배상현씨 '바그다드' 참상 e-메일 전해 [조선일보/사회 2003.03.28]

폭격참상 이야기.

반전운동 신성국 신부 요르단서 첫 소식 전해 [조선일보/사회 2003.03.29]

신성국신부 소식.

[이라크전] 폭격으로 통신 끊긴 바그다드 [조선일보/국제 2003.03.30]

유은하씨, 인터넷 접속 불가능 소식 전해옴.

[이라크전] 이라크 반전평화팀 "파병하면 국적 포기" [조선일보/사회 2003.03.30]

반전평화팀이 정부가 파병할 때 국적포기할 것이라고 30일 밝힘.

인간방패 배상현씨 요르단 암만에 도착 [조선일보/사회 2003.3.30]

배상현씨가 30일 새벽 2시 15분에 바그다드 빠져나와 암만에 도착했다는 소식.

[이라크전] 배씨, 전쟁중언위해 사선넘어 [조선일보/사회 2003.03.30]

사선넘어 요르단으로 가다 부상.

[이라크전] 배씨 "공습강화로 민간지역 폭격" [조선일보/국제 2003.03.31]

31일 오전 연합뉴스 기자와의 통화 통해 무고한 양민들이 숨졌다고 이야기.

[이라크전] 배상현씨 '5일간의 전쟁참상'고발 [조선일보/국제 2003.03.31]

보고서 통해 참상 고발

[이라크전] 인간방패 배상현씨 곧 귀국할 듯 [조선일보/국제 2003.04.01]

배상현씨의 귀국.

[이라크전] 인간방패 배상현씨 3일오전 귀국 [조선일보/사회 2003.04.01]

3일 귀국소식.

[이라크전] 한상진씨도 요르단으로 빠져나와 [조선일보/사회 2003.04.02]

한상진씨도 요르단 암만에 2일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 유은하씨 무사.

반전평화팀 "파병시 국적포기" [조선일보/사회 2003.04.03]

배상현, 임영신 귀국 동시 기자회견서.

'남자'들은 돌아온 바그다드에 혼자 남은 '인간방패' 유은하씨 [2003.04.03]

배상현씨의 귀국, 유은하씨 소식

바그다드에 홀로 남은 한국인 '인간방패' 유은하씨 [조선일보/국제 2003.04.03]

유은하씨 소식.

'파병시 국적포기' 네티즌 공방 [조선일보/사회 2003.04.03]

배상현씨와 임영신씨의 국적포기 의사에 대한 네티즌 찬반논쟁

시민단체, "파병안 위헌" 헌법소원 [조선일보/사회 2003.04.03]

청와대 앞 파병동의안 철회 요구 항의서한 전달.

반전평화팀, 파병철회 천막농성 [조선일보/사회 2003.04.08]

평화를 염원하는 천막농성, 파병저지를 위한 지속적 투쟁펼칠 것.

[이라크전] 전장서 사랑 꽃피우는 장애아들 [조선일보/국제 2003.04.08]

유은하씨의 어린이들에 대한 이야기.

[이라크전 뒷 얘기] '인간방패' 임영신씨가 본 '현장' [주간조선 2003.04.15]

임영신씨 이야기 그대로 인용.

"이라크와 요르단 국경에 있는 난민 캠프는 '지옥의 사막'입니다. 폭설과 비바람, 밤의 추위, 10분도 버터내기 힘든 모래 돌 풍... 텐트가 사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텐트를 지키고 있는 지경입니다. 텐트 한 장과 마른 빵 한 조각으로 사람들은 고통을 이겨냅니다."

반전단체 파병반대 기습시위 [조선일보/사회 2003.04.17]

오김숙이씨 등반전운동가 6명이 파병에 반대하는 기습시위벌이다 연행.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 지원연대 회원 6명도 교보문고 옆 도로에서 누워서 파병반대 시위.

보수-진보진영 동시 4.19 도심집회 [조선일보/사회 2003.04.19]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반전평화팀 은국씨의 퍼포먼스.

[부산울산경남] 배상현씨, 30일 이라크로 [조선일보/지역 2003.04.20]

오는 30일 다시 이라크로 들어가는 배상현씨.

'인간방패' [조선일보/사회 2003.04.21]

영어회화 부분에서 인용.

[이규태코너] 바그다드 동물원 [조선일보/사설칼럼 2003.04.23]

"이번 전쟁을 치룬 바그다드 동물원에는 이라크군 야전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한다. 미군이 동물원까지 폭격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인간방패 아닌 동물방패를 삼았을 것이다. 혹은 맹수를 사살할 여유가 없었는지도 모른다. 미군의 속전(速戰)으로 폭격은 면했으나 미군이 이곳을 점거했을 때는 굶어죽기 직전의 사자 네 마리가 우리를 탈출, 사살당하는 비극이 보도되었다. 박물관처럼 약탈의 손을 면할 수 없었던 동물원에도 말 원숭이 낙타 조류 등 순한 짐승은 모조리 약탈당하고 탈출 못하고 남아있는 맹수들은 미군에 의해 급송된 사료로 생명을 부지하게 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전쟁의 비극은 인간사회만도 아님을 절감케 하는 바그다드 동물원이다."

'정신대 수요집회' 참석한 이라크 여성 [조선일보/사회 2003.07.23]

반전평화팀 임영신씨의 초청으로 압둘카림씨 참석.

<중앙일보>

국내 6개도시서 대규모 반전시위 [2003.02.15]

이 자리에는 특히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저지하기 위한 '인간방패'를 자원, 16일 이라크로 출발하는 허혜경(28.여)씨 등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2진 팀원들이참여해 반전 결의를 다졌다.

한국서 이라크 반전평화팀 2진 출국 [2003.02.16]

반전평화팀 2진은 여성운동을 벌이고 있는 허혜경(29.여.대학원생)씨,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에 나서고 있는 은국(23.대학생)씨, 전승로(22.여.대학생)씨 그리고 성혜란(26.여)씨 등 4명으로 구성됐다

[정보광장] 마산시철서정수장 외 [02.18]

마산 열린사회 희망연대서 2-3명 반전평화팀과 함께 과견할 것이라는 소식.

이라크 반전평화팀 3진 출국 [2003.02.19]

오김숙이씨 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2명 귀국 [03.11]

은국, 혜경씨 귀국

[사람사람] '인간방패' 한상진씨 [03.16]

한상진씨에 대한 소개.

[이라크전] 시민들 사태추이에 촉각 [03.18]

염창근 사무국장과의 인터뷰. 전쟁이 실제로 발발한다면 무척 안타까울 것이다. 그러나 반전활동 계속 할 것.

[한국이라크 반전평화팀 항후진로] (03.19)

바그다드에 남은 사람, 요르단에서는 구호 활동, 국내 반전활동으로 나뉘

[인간방패 배치된 시민활동가 배상현씨] (03.19)

마산 열린사회 희망연대 배상현씨 소개. 북바그다드 배치

[이라크전] 정부 비상태세 돌입 (03.20)

이라크전이 발발하면서 정부도 비상태세 돌입, 반전평화팀에 대한 언급

인간방패 배상현씨 가족 생사물라 걱정 (03.20)

파견단체들도 소식 몰라.

한국인 4명 전쟁터에 잔류 (03.20)

한상진, 유은하, 배상현, 조성수 씨등 전쟁이 나도 잔류.

[이라크전] 재외공관 테러경계령 (03.21)

[이라크전] '하늘색 리본달기 운동' (03.21)

반전평화팀 지원연대는 국내에서 평화의 하늘색 리본달기 운동을 벌임

[이라크전] 시민단체 전쟁반대 계속 (03.21)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은국씨도 참여

[이라크전쟁] "쿵...쿵...쿵.." 복도로 또 긴급 대피 (03.21)

유은하씨의 소식.

인간방패 배상현씨 바그다드서 생존 (03.21)

바그다드 시내 호텔에서 생존.

[이라크전] 주말 대규모 반전평화집회 (03.22)

반전평화팀도 참여. 국제전화를 통해 공동성명서 낭독순서

[이라크전] 반전평화팀 장시간 연락두절 (03.22)

이라크로 들어간 반전평화팀의 장시간 연락두절

[이라크전] 반전평화팀 3명 '무사확인' (03.22)

이라크에 들어간 3명이 무사하다는 소식.

전국이 전쟁신드롬 (03.23)

이라크반전평화팀도 접속폭주.

[이라크전] 인간방패 배상현씨 e-메일 현지소식 전해 (03.23)

이메일로 자신의 소식을 전해온 배상현씨.

[이라크전] 한국인 3명 바그다드 외곽 정수장서 '인간방패' (03.23)

전장에 남아 있는 3명에 대한 보도

[이라크전쟁] 인간방패 배상현씨 e-메일 (03.23)

이메일로 자신의 소식을 전함.

이라크반전평화팀 4명 귀국 (03.24)

반전시위대 '국회진입' 시도 (03.24)

[이라크전] 한강대교서 기습 반전시위 (03.25)

한강대교 위에서 은국, 현종씨 기습 반전시위

대학가 반전 동맹휴업 들쭉 (03.25)

반전동맹휴업, 한강기습시위

[이라크전] "공습부상자와 함께 울었다" (03.25)

유은하씨, 공습으로 다친 부상자와 함께 울었다는 소식.

[이라크전] 반전평화팀 유은하씨가 전한 25일 바그다드 (03.26)

유은하씨의 25일 바그다드 소식

[이라크전] "바그다드 상공 시커먼, 연기로 뒤덮여" (03.26)

유은하씨의 현장증언

[이라크전] "부시 블레어 전법고소 준비중" (03.28)

이라크평화팀과 함께 부시블레어 고소 준비작업.

[이라크전] 배상현씨 '바그다드' 참상 e-메일로 전해 (03.28)

[사진] 바그다드 시내 철조망에 걸린 한글반전플래카드 (03.28)

[이라크전] 배상현씨 e-메일 다친 민간인들로 병원 복세통 (03.28)

[이라크전] 대피 쿠웨이트, 이스라엘 교민 복귀 (03.29)

다시 생활본거지로 복귀, 바그다드엔 한국인 5명 머물고 있음.

[이라크전] 인간방패 배상현씨 요르단 암만에 도착 (03.30)

배상현씨가 바그다드서 나와 암만에 도착했다는 소식

[이라크전] 이라크 반전평화팀, "파병하면 국적포기" [03.30]
이라크 반전평화팀이 파병할 경우 국적을 포기할 것이라는 선언.

[이라크전] 배상현씨 '5일간의 전쟁참상'고발 [03.31]
이라크 전쟁참상을 알려줌.

[이라크전] 배상현씨 '공습강화로 민간지역 폭격' [03.31]
민간지역에도 폭격을 가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보도.

[이라크전] 인간방패 배상현씨 3일 오전 귀국 [04.01]
배상현씨가 3일 오전에 귀국할 것이라는 소식.

[클릭] 전쟁도 반전도 IT WAR [04.01]
인터넷이용이 부쩍 늘. 소란씨와 인터뷰.

[이라크전] 한상진씨도 요르단으로 빠져나와 [04.02]
배상현씨에 이어 한상진씨도 요르단으로 유엔하씨만 남음

[이라크전] '파병시 국적포기' 네티즌 공방 [04.03]
파병시 국적포기에 대한 네티즌들의 찬반논쟁

[이라크전] 이라크전 보도 주제로 토론회 [04.03]
반전평화팀 허혜경씨도 참가.

"파병안 통과는 침략전쟁에 동참한 것" [04.03]
"우리의 이익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침략전쟁에 동참하겠다는 한국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하겠습니다." 배상현씨, 임영신씨 국적포기에 대한 보도

[이라크전] "바그다드도 내 마음도 전쟁중" [04.04]
유엔하씨의 현지소식.

[이라크전] "아랍의 생명력과 여유" [04.07]
"어쩌면 미국이 제일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라크인을 비롯한 아랍 문명권의 생명력과 여유입니다." 바그다드에서 이라크평화팀으로 활동중인 유엔하(29.여)씨가 현지에서 위성전화로 e-메일을 보내왔다

반전평화팀, 파병철회 천막농성 [04.08]
국내 반전평화팀과 지원연대가 천막농성에돌입.

반전단체 파병반대 기습시위 [04.17]
평화문, 교보문고에서의 반전평화팀 기습시위

19일 도심 보-혁 동시집회 [04.18]
행사에서는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 소속 '인간방패'의 발언

인간방패 배상현씨 30일 이라크로 재출국 [04.18]
배상현씨 다시 출국.

인간방패 배상현씨 내달 2,3일께 이라크 재입국 [04.29]
이라크에 재입국한다는 소식.

이라크어린이 돕기, 가수 조용필씨 공연 [05.14]
경남 마산에서 콘서트, 배상현씨 파견했던 '코리아 평화연대' 24일에.

<한겨레>

2월 7일(금) : '인간방패' 반전시위단 출국 (영종도/연합, 사진-이정우 기자)
- 이라크반전평화팀 1진 3명 출국 기사

2월 15일(토) : 국내 6개 도시서 대규모 반전시위 개최 (서울/연합)
- 2진이 참여해 반전 결의를 다졌다는 기사

2월 16일(일) : 이라크 반전평화팀 2진 출국 (서울/연합)
- 2진 4명 출국 기사

2월 16일(일) : 칼럼, 참여적 자아 (정혜신)
- 공동체와 참여적 자아에 관한 칼럼, 1진 이영화·남효주·한상진에 대한 이야기

2월 16일(일) :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 (신윤동욱 기자)
- 여성이 반전운동에 나선 기사, 평화팀에 여성의 참여가 높다는 이야기

2월 19일(수) : 이라크 반전평화팀 3진 출국 (영종도/연합)
- 3진에 오김숙이 출국 기사

2월 23일(일) : 이라크 반전평화팀 3진 출국 (최혜정 기자)
- 3진 4명이 22일에 출국했다, 현지 반전평화팀 현황에 관한 기사

2월 24일(월) : 이라크반전 평화운동 본격 가동 (바그다드/연합)
- 인간방패와 이라크피스팀의 현지 활동, 한상진·허혜경 참여한 기사

2월 24일(월) : 바그다드 주재 외국 공관원 60% 철수 (바그다드/연합)
- 바그다드에 한국인 소식, 한상진·허혜경 포함 16명이 머물고 있다는 기사

3월 1일(토) : '이라크 반전평화팀' 본격활동 시작 (서울/연합)

- 반전평화팀이 이라크에 입국해 활동을 시작했다는 기사

3월 2일(일) : 이라크파병으로 국가변영? (이수호/국제민주연대 베트남전 진실위원회 상임활동가)

- 베트남전 파병과 비교하며 이라크파병 반대에 대한 이야기

3월 11일(화) : '이라크 반전평화팀' 2명 귀국 (영종도/연합)

- 은국허해경 귀국, 현지 소식

3월 11일(화) : 인간방패 2명 귀국회견 "이라크전 막아야 한반도 위기막아" (김순배 기자, 사진 감창광 기자)

- 은국허해경 귀국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한 내용 (기사 전문 수록)

3월 12일(수) : '전쟁의 칼' 막아선 '인간방패'들 (권정숙 기자)

- 문화방송, 경인방송이 동행취재 방영에 대한 이야기

3월 16일(일) : 다양한 '평화'운동 (신윤동욱 기자)

- 노래, 플래시, 포스터, 리플달기 등 다양한 반전평화운동에 대한 기사

3월 17일(월) : 단산-한겨레 영화학교 개강소식 외

- 인권영화 정기상영회에 반전평화팀의 영상(성혜란 감독)이 상영될 것이라는 기사

3월 18일(화) : 정부 교민철수 비상체제 (서울/연합)

- 이라크, 이스라엘, 쿠웨이트 등에 교민 소식, 이라크에 5명 교민 잔류 소식, 반전평화팀 8명 잔류 소식

3월 18일(화) : "한국 반전평화팀 3명, 전쟁나도 이라크 남는다" (서울/연합)

- 3명 잔류 및 9명 철수 중이라는 오김숙이 팀장의 말을 빌어 기사

3월 18일(화) : "전쟁반대" "파병반대" 들끓는 여론 (신윤동욱 최혜정 기자)

-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네티즌 의견, 평화팀 3명 잔류 소식

3월 18일(화) : 이라크전 시민들 사태추이에 촉각 (서울/연합)

-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지원연대 계획 소식, 학계 견해 소개

3월 18일(화) : 바그다드의 한국 반전평화팀 (바그다드/임종진 기자)

- 16일 바그다드 해방광장에서 걸개그림 춤사위를 하는 유은하 사진

3월 19일(수) : '인간방패' 배치된 시민활동가 배상현씨 (서울/연합)

- 배상현 인간방패로 배치되었다는 소식, 반전평화팀 소식

3월 19일(수) : 한국인 3명 '인간방패' 잔류 (최혜정 기자)

- 한국인 3명 한상진유은하배상현 이라크에 잔류하고 있다는 소식

3월 19일(수) : "우리가 미군전 전쟁광 부시" (신윤동욱 최혜정 전정운 최상원 정대하 기자)

- 각계 각지에서 반전운동을 하고 있는 기사, 지원연대의 대사관앞 1인시위, 촛불시위 소개

3월 20일(목) : 바그다드에 남은 한국 반전활동가 3인

- 전쟁이 시작되면서 바그다드에 남은 한상진유은하배상현에 관한 기사 (최혜정 석진환 전정운 기자)

3월 20일(목) : "오만한 미국" "파병 철회" 목청 (서정민 최혜정 양선아 최상원 정대하 기자)

- 이라크 침공 규탄하는 시민사회계 소식, 지원연대 기자회견 소식

3월 20일(목) : 정부, 이라크전 비상태세 돌입 (서울/연합 황재훈 기자)

- 중동지역에 있는 교민 소식, 이라크에 반전평화팀 3명과 취재진 1명이 잔류하고 있다는 소식

3월 21일(금) : 시민들 '평화찾기' 한마음 (서울/연합)

- 반전운동에 대한 기사, 지원연대의 하늘색 리본달기 운동 등 소개

3월 21일(금) : 한국 반전평화팀 후원금 바둑 (신윤동욱 전정운 기자)

- 후원금에 관한 기사

3월 21일(금) : '대이지 꽃' '하늘색 리본' 평화상징물 떠올라 (신윤동욱 정대하 기자)

- 시민들의 각종 평화활동 소개

3월 21일(금) : 한국 반전평화팀 "전쟁 끝날 때까지 현지남아 봉사" (서정민 김진철 기자)

- 반전평화팀 바그다드, 암만, 한국에서의 소식

3월 22일(토) : "오 피스! 전쟁중단" 반전 평화물결 (조연현 석진환 양선아 정대하 기자)

- 토요일 각종 반전평화 집회 소식, 지원연대 행사 소식

3월 22일(토) : "미국도 평화 사랑하게 해주세요" (신윤동욱 양선아 기자)

- 어린이들의 반전평화 시위 참여 소식, 박기범이라크통신과 관계한 어린이 이야기

3월 22일(토) : 서울도심에서 대규모 반전평화집회 (서울/연합)

- 각종 토요일 대규모 집회 소식, 지원연대 집회 소식

3월 22일(토) : 반전평화팀 3명 장시간 연락두절 (서울/연합)

- 정부 관계자 및 조성수 기자가 확인을 할 수 없다는 기사

3월 23일(일) : 배상현씨 등 반전평화단 3명 정수시설보호 활동 (김진철 기자)

- 배상현 열린사회희망연대로 메일을 보내왔다는 소식, 정수시설 보호활동을 한다는 소식

3월 23일(일) : "우리는 지금 바그다드로 간다" (서정민 김진철 기자, 사진 임종진 기자)

- 이라크로 구호활동을 간다는 소식, 김수경 PD중앙아시아 천사들월드비전 한비아 참여 소식

3월 23일(일) : 사실, 국회는 '반전 여론'을 반영하라

- 반전여론에 관한 사실, 평화팀과 지원연대의 시민한마당 이야기

3월 23일(일) : 공습에도 의연하게 일상생활 (강성만 기자)

- 캐시 캘리의 바그다드 일기 소개, 캐시 캘리 사진

3월 23일(일) : 반전평화팀.민노총 대표단, 군대파병결정 철회 촉구 (임만/연합)

- 압만의 평화팀과 민주노총 대표단의 한국대사관 앞 파병반대 성명 소식

3월 23일(일) : 인간방패 유은하씨가 전한 바그다드 현장 (서울/연합)

- 유은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정리, 바그다드 현황 및 추방 소식

3월 24일(월) : "전쟁 터지면 수천수만의 미선, 호순이 나와" (전정윤 기자)

- 국회 앞 단식투쟁하는 유호근 씨 인터뷰 기사, 병역거부자로서 참여하려다 못한 이야기

3월 24일(월) : 이라크반전평화팀 4명 귀국 - "CNN보도 미국 시각" (영종도/연합)

- 오김숙아전승로이해종최병수 귀국 기자회견 기사, 오김숙아최병수 말 인용

3월 24일(월) : 한국 '이라크반전평화팀'등 7명 귀국 (석진환 김태규 기자, 사진 이종근 기자)

- 반전평화팀 4명, 민주노총 대표단 3명 귀국 기자회견 기사

3월 24일(월) : 민간피해 속출...바스라 수백명 사상 (이수범 기자 외신종합)

- 현지 소식 외신 종합, 반전평화팀의 바그다드 현황 전달 기사화

3월 24일(월) : 왜냐면, 노 대통령은 파병 결정 철회하라 (공나형/군산영광여자고등학교 1학년)

- 왜냐면 의견, 노대통령의 전쟁 지지는 평화팀의 생명을 위협하는 미군의 공범자임을 주장

3월 25일(화) : "파병반대" 곳곳 시위 (김순배 김태형 전정윤 기자)

- 파병반대거리 시위,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 소속 은국씨 한강대교 아치 위 기습 반전시위

3월 25일(화) : 참화속의 이라크 돌기 운동을 (사실)

- 반전평화팀은 현지인들이 외국인론에 매우 민감, 반전평화운동에 고마움 표시한다고 전함

3월 25일(화) : 이라크 반전평화팀 "공습부상자와 함께 올었다." (서울/연합뉴스)

- 유은하씨가 자신의 홈페이지(withyoo.cyworld.com)를 통해 보내 현지소식을 전해와

3월 25일(화) : 반전평화팀 대학생, 한강대교서 기습시위(서울/연합뉴스)

- 한국반전평화팀 소속 은국씨가 한강대교 아치위에 올라가 기습반전시위 벌임

3월 25일(화) : '파병안' 반대집회 잇따라 (서울/연합뉴스)

- 한국반전평화팀 은국씨가 한강대교 아치위에 올라가 기습반전시위 벌여 경찰서에 연행

3월 25일(화) : 한강다리 오르 '반전평화' (이정용 기자)

- 은국씨가 '학살중단, 파병 반대' 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한강대교에서 기습 시위

3월 26일(수) : "집, 학교 잇단 폭격피해에 분노" (서정민 김진철 기자)

- 유은하씨가 보내온 현지 소식

3월 26일(수) : 국제인권공항서 열린 반전 미사 (서울/연합뉴스)

- 신신부 인권공항서 반전미사, 이라크한국반전평화팀에 합류할 예정

3월 26일(수) : 한-미 관계, 언제까지 이대로만 같 것인가 (유은하 독자)

- '파병결정 지지'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반전평화팀의 행동이 예로 들어가

3월 27일(목) : 한국 반전평화팀 3명 무사한 것으로 (마산/연합뉴스)

- 한상진, 배상현, 유은하씨 3명 전원 무사 확인

3월 28일(금) : "아이들이 무슨 죄.." (김보근 한겨레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 'NO WARPORACE'로 입금자 이름 대신 현지 단체와 연대 조속한 지원경로 모색

3월 28일(금) : "부시·블레어 국제전범 고소" (신운동목 서정민 기자)

- 반전평화팀의 유은하, 배상현씨가 부시, 블레어를 국제전범 고소 준비작업중

3월 28일(금) : 반전평화 위한 새 촛불시위 제안 (서울/연합뉴스)

-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과 '지원연대'가 반전평화촛불시위 열것을 제안

3월 28일(금) : "미국의 양심 위한 난민구호는 안돼" (서울/연합뉴스)

- 반전평화팀의 임영신씨가 홈페이지, 통해 난민촌 현지 모습 전해

3월 28일(금) : 반전평화팀 "부시, 블레어 전범 고소 준비중" (서울/연합뉴스)

- 반전평화팀의 유은하, 배상현씨가 부시, 블레어를 국제전범 고소 준비작업중

3월 28일(금) : 반전활동단체 후원금 담지 (신운동목 전정윤 기자)

- 한국 이라크반전평화팀 활동비 부족 기사 뒤 시민들의 후원금 쏟아져

3월 29일(토) : 반전운동 신성국 신부 요르단서 첫 소식 (청주/연합뉴스)

- 신신부의 요르단 소식

3월 30일(일) : 4살아이 폭격상처에 기생충이... (정진철 기자)

- 유은하씨의 홈페이지에 보내온 현지 소식

3월 30일(일) : [이라크] "바그다드 통신망 완전히 끊겨" (황상철 기자)

- 바그다드에 남아 있던 배상현씨 요르단에 도착

3월 31일 (월) : [이라크] "원망에 찬 눈망을 잊을수 없어" (김순배 기자)
-최병수씨 어린이참상 걸개 그림 이라크반전평화팀 주최하는 이라크 어린이 돕기 모금행 사 때 쓰일 것

3월 31일 (월) : 세계분쟁 데이터베이스(kids.re.kr/limd...(네이버검색팀 제공)
-세계분쟁관련 사이트에 이라크반전평화팀의 홈페이지 수록

4월 1일 (화) : [파병논란] 압만 반전평화팀 4명 2일 바그다드로 (김진철 기자)
-박기범, 성혜란, 신성국, 김하운씨등 4명 2일 바그다드에 들어갈 예정

4월 1일 (화) : 인간방패 배상현씨 곧 귀국할듯(마산/연합뉴스)
-요르단으로 빠져나온 배상현씨 곧 귀국 할 듯

4월 1일 (화) : [이라크] 반전평화팀 "2일 다시 바그다드로" (임종진 기자)
-배상현씨 기자회견

4월 1일 (화) : [이라크] 반전평화팀 "의약품 전달통로 개척" (신윤동욱 기자)
-반전평화팀 "의약품 전달 통로 개척"하여 한겨레 캠페인에 동참 뜻 밝혀

4월 2일 (수) : 압만 반전평화팀 3명 바그다드로 출발 (마산/연합뉴스)
-반전평화팀 3명 바그다드로 들어가 전쟁참상 기록 등 반전활동 벌일 계획

4월 2일 (수) : [파병논란]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니다" (신윤동욱 최혜정 기자).
-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니다" 반전평화 국제연대 '성کم'

4월 2일 (수) : 인간방패 한상진씨 이라크서 추방 당해 (황상철,서정민 기자)
-한상진씨 사진촬영 의심 받아 이라크 당국에 의해 추방당함

4월 3일 (목) : 은하가 이라크에 있는 까닭 (김두식 변호사)
-유은하씨에 대한 글

4월 3일 (목) : 반전평화팀 '파병시 국적포기' (영종도/연합뉴스)
-이라크에서 3일 귀국한 임영신씨와 배상현씨 파병결정에 항의하는 뜻으로 국적포기 선언

4월 3일 (목) : [이라크] '파병시 국적포기' 네티즌 공방 (서울/연합뉴스)
-임영신씨와 배상현씨의 국적포기외사에 대해 네티즌 찬반논쟁 쏟아져

4월 3일 (목) : 반전평화팀 배상현·임영신씨 귀국 (김순배 기자)
-반전평화팀의 임영신씨와 배상현씨 귀국

4월 3일 (목) : 반전평화팀 배상현·임영신씨 일문일답 (영종도/연합뉴스)
-귀국한 배상현,임영신씨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

4월 4일 (금) : [이라크] "바그다드도 내 마음도 전쟁 중" (서울/연합뉴스)
-유은하씨 이메일 통해 전쟁으로 들어가는 민간인 피해상황과 심경 밝혀

4월 6일 (일) : [이라크] "미군 폭격 사정권에 들면 어디로..." (김진철 기자)
-유은하씨의 이메일 통해 전해진 이라크 현지 소식

4월 7일 (월) : 유은하씨 e메일 "교전소리 가깝게 들려" (황준범 기자)
-유은하씨 현지상황과 자신의 심경 전자우편 통해 보내와

4월 8일 (화) : 반전평화팀, 파병철회 천막농성 (서울/연합뉴스)
-한국반전평화팀 소속 9명 전쟁중단과 정부의 파병철회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

4월 8일 (화) : "전쟁에서 사랑 꽃피우는 장애인들" (서울/연합뉴스)
-유은하씨 이메일 편지 공개

4월 8일 (화) : [이라크] '전쟁보도' 인간은 없고 승패만 있다 (조일준 기자)
-이라크침공전쟁에 대한 토론회 열려, 반전평화팀 소속 허혜경씨는 "언론이 이라크 현지에 있는 반전평화팀원의 눈을 통해 전쟁의 참상과 진실을 보지 않고 그들에게 전쟁보도를 위한 정보와 '드라마' 처럼 극적인 이야기거리를 원하는 것 같았다" 며 상업주의적 속성을 비판

4월 8일 (화) : "파병철회" 반전평화팀 무기한 농성 (강김아리 기자)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이 한국군 파병 저지와 미국이라크전 중단위한 무기한 천막농성

4월 10일 (목) : 유은하씨등 바그다드반전평화팀 4명 안전 김진철 기자)
-한국인 4명이 안전한 상태 확인됐다고 '한국 이라크반전평화팀 지원연대' 가 밝힘

4월 11일 (금) : [이라크] 우리는 다시 바그다드로 간다 (임영신)
-반전평화팀의 임영신씨의 글

4월 11일 (금) : [이라크] 이라크 의약품 1차분 12일 현지로 (이태희 기자)
-'이라크 어린이에게 의약품' 1차 선발대에 임영신씨 합류

4월 13일 (일) : 박노해 시인·최창모 교수 바그다드로 들어 (김진철 기자)
-유은하씨는 바그다드에 남아, 박기범씨는 상황 전하기 위해 요르단으로 나와

4월 16일 (수) : 황상철기자 바그다드를 가다 (1) 의약품전달...(황상철 기자)
-한겨레 취재팀 임영신씨와 함께 의약품을 현지에 전달

4월 17일 (목) : 가지마/갯다울게 (김정호 기자)
-반전평화팀 회원들 파병반대 시위

4월 17일 (목) : [파병논란] 반전단체 파병반대 기습시위 (서울/연합뉴스)

-오김숙이 등 반전평화팀 지원연대 파병반대 시위

4월 18일 (금) : 19일 도심 보수-진보진영 동시 집회 (서울/연합뉴스)

-보수와 진보진영의 집회 동시에 행사에서 '인간방패' 발언

4월 21일 (월) : [이라크] 국적 포기 선언을 지지하는 이유 (매닉 아나키스트)

-임영신씨와 배상현씨의 국적포기 선언지지 글

4월 21일 (월) : "자식사랑 100분의 1만큼만 이라크 어린이?... (김진철 기자)

-유은하씨 어머니와 인터뷰

5월 2일 (금) : [이라크] 3차 의료진 3명 바그다드로 (이태희 기자)

-한겨레 이라크캠페인팀 유은하씨가 일하는 장애인복지시설 방문

5월 5일 (월) : "아이들 상처 파리며 우글 악폭 절박해" (김진철 기자)

-유은하씨 전자우편 통해 현지사정 설명, 구호활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

5월 14일 (수) : 반전의 중심엔 여성이 있었다 (이지은 기자)

-한국이라크 반전평화팀에 여성 참여 많음

5월 21일 (수) : [이라크] "모양내기 봉사하려면 오지마세요"(김진철 기자)

-유은하씨 한국일부구호단체들의 생색내기 활동 비판 글

5월 30일 (금) : 반전평화팀 유은하씨 귀국 "내달중순 돌아?... (김진철 기자)

-유은하씨 70여일의 바그다드 활동 잠시 멈추고 귀국

6월 23일 (월) : [문학] 잠시 귀국한 작가회의 종군문인 오수연씨 (임종정 기자)

-오수연씨의 기자회견

7월 20일 (일) : [여성] "바그다드에 평등 씨앗 함께 뿌려요" (이지은 기자)

-반전평화팀에서 활동한 임영신씨의 초청으로 이라크 여성 한국 옴

7월 23일 (수) : 이라크 시민 정대협 수요집회 참석 (김정호 기자)

-이라크인 수아드 칼림 정신수요집회에 참석

8월 1일 (금) : [이라크] "이라크 평화재건 땀방울 뉘십니까(석진환 기자)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 이 7월31일로 현지 활동을 공식 마무리

8월 3일 (일) : 이라크 "이라크 주민들 아파도 갈곳몰라 썰썰" (김진철 기자)

-유은하씨의 기자회견

8월 13일 (수) : [사람] 이라크 빈민 지원활동가 2인 본사 방문 (강김아리 기자)

-이라크 빈민 지원활동가 살람 가드반과 카심 살만이 13일 오전 한겨레신문사를 방문

기타일간지 날짜별로 (노동일보, 우먼타임즈, 매일경제, 굿데이)

노동일보 2월 7일 (금) : '이라크 반전평화팀' 출국

-'한국-이라크 반전평화팀' 소속 활동가들이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우먼타임즈 2월 11일 (화) : "우리가 수호 천사" (장철영 기자)

-7일 출국한 반전평화팀 한상진씨 등의 사진

우먼타임즈 2월 11일 (화) : '이라크 반전평화팀' 참가 오김숙이·허혜경씨(박이은경 기자)

-2진으로 이라크로 떠날 예정인 오김숙이씨와 허혜경씨와의 인터뷰

노동일보 2월 15일 (토) : 국내서도 대규모 반전시위 개최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국제공동 반전평화 대행진' 개최

매일경제 2월 15일(토) : 전쟁반대 위해 이라크 가는 여성활동가 (김남권 기자)

-'여성과 어린이가 최대 피해자' 오김숙이씨 이라크 가는 이유 설명

매일경제 2월 15일(토) : 국내6개도시서 대규모 반전시위 (김남권 기자)

-국제반전의 날 행사와 함께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 반전평화 대행진

매일경제 2월 16일(일) : 한국네티즌 '미국의 이라크 침공 반대' (손현석 기자)

-스포츠서울닷컴의 설문조사 결과 49.7% 반전평화팀을 지지한다고 밝힘

노동일보 2월 16일 (일) : 반전평화팀 2진 이라크로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 2진이 16일 오후 이라크로 출국 (김봉석 기자)

매일경제 2월 22일(토) : 바그다드'전쟁불사 무거운 시내분위기' (정광훈 특파원)

-이라크에 입국한 반전평화팀 활동시작, 바그다드 시민들의 결사적인 분위기

노동일보 2월 23일 (일) : 인간방패 3진 이라크로 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3진 4명이 22일 출국 (김봉석 기자)

굿데이 2월 24일(월) : 이라크 반전 평화운동 본격 가동 (연합)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반대하는 인간방패와 이라크 반전평화팀운동원들이 그동안의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노동일보 3월 13일 (목) : 정치권 '이라크전 반대' 목소리 확산 (우은식 기자)

-여야의원 35명 반전성명 4개 진보정당 '파병요청 거부' 요구 공동성명

매일경제 3월 18일(화) : 이라크전 교민 철수 비상체제 (황재훈 기자)

-18일 미국의 최후통첩으로 교민과 반전평화팀 철수 강력히 권유

굿데이 3월 18일(화) : no war 목청커진다..네티즌 반전음직임 활발 (정유미 기자)
-msn메신저 사용자들 평화표시 기호붙임, no war 배너사용, 반전 커뮤니티 급증

굿데이 3월 18일(화) : 한국인 반전평화팀 3명 "전쟁나도 이라크 남는다."
-미국의 대이라크 공습이 시작되도 반전평화팀원 현지에 남을 계획 (연합)

굿데이 3월 18일(화) : <이라크전> 시민들 사태추이에 촉각
-"국내에 NGO와 힘을 모아 난민구호 활동을 벌이고 반전 운동을 계속할 것"이라

우먼타임즈 3월 18일 (화) : 인간방패 유은하씨, 누군가는 그를 위해 남아야..(취재)
-반전평화팀으로 이라크에 간 유은하씨 소개 기사

노동일보 3월 19일 (수) : "이라크전 국제법상 불법"
-시민단체 파병안 철회 촉구 (유승용, 김봉석 기자)

굿데이 3월 19일(수) : 반전평화팀 무사귀환 기원, 반전 1인시위 (연합)
-평화연대 김영만 준비위원장 마산에서 1인시위 벌임

매일경제 3월 19일(수) :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향후 진로 (김남권 기자)
-반전평화팀원 중 한상진씨 등 3명은 전쟁이 시작하더라도 현지에 남기로 결정

매일경제 3월 19일(수) : 인간방패 배치된 시민활동가 배상현씨 (김남권 기자)
-반전평화팀원 중 배상현씨 인간방패를 자원

매일경제 3월 19일(수) : 이라크 교민 전원철수 (매일경제 TV)
-반전평화팀 3명과 취재진 1명을 제외한 교민들 전원 철수

굿데이 3월 19일(수) : <이라크전>전장서 사랑 꽃피우는 장애아들
-유은하씨가 보낸 이메일 편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매일경제 3월 20일(목) : 정부 이라크전 비상태세 돌입 (황재훈 기자)
-이라크전 개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판단아래 정부 부처별로 비상체제 돌입

매일경제 3월 20일(목) : 이라크전 반전평화팀 현지소식 (조재영 기자)
-유은하씨 이라크 공습 첫날 바그다드의 상황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림

굿데이 3월 20일(목) : 위험지역 교민 취재진 255명 집계(정유미 기자)
-이라크전 발발시 전쟁 피해 우려지역에 한국교민과 취재진 255명

노동일보 3월 20일 (목) : 전쟁이 아닌 학살
-시민단체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격분 (김봉석 기자)

매일경제 3월 21일(금) : 이라크전 재외공관 테러경계령 (황재훈 기자)
-정부 전 재외공관에 테러경계 강화지시, 반전평화팀 3명 기자1명 무사함

매일경제 3월 21일(금) : 이라크전 시민단체 전쟁반대 계속 (황희경 기자)
-시민단체들 전쟁반대, 반전평화팀 은국씨 그동안의 활동상황 설명

매일경제 3월 21일(금) : 전쟁 생중계...네티즌 잠 설치다. (유용하, 신현규 기자)

-반전평화팀 지원연대 홈페이지에 배상현,한상진,유은하씨 네티즌에게소식전함

굿데이 3월 21일(금) : 한상진씨 "이라크서 묻히겠다" 유서 충격
-한상진씨가 죽음을 각오하는 내용의 유서를 보내 충격 (연합)

매일경제 3월 22일(토) : 이라크전 반전평화팀 장시간 연락두절 (문관현 기자)
-반전평화팀 20시간 연락두절

매일경제 3월 22일(토) : 이라크전 반전평화팀 3명 무사확인 (문관현 기자)
-21일 하루동안 연락두절됐던 반전평화팀 모두 무사

매일경제 3월 22일(토) : 주말 대규모 반전평화집회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과 여중생 범대위 반전평화실현 촛불대행진

노동일보 3월 22일 (토) : 주말 대규모 반전평화집회
-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과 여중생 범대위 '반전평화실현 촛불대행진

노동일보 3월 23일 (일) : 이라크 파병 안된다 (박현진, 김봉석 기자)
-민주노총-시민사회단체 200여명 국회앞 노숙투쟁 국회의원 출근저지 강경투쟁

노동일보 3월 23일 (일) : 주말 반전집회 후끈 (김봉석 기자)
-시청앞 광장서 4000여명 운집 턱나한 스님 걷기명상 이어져

노동일보 3월 24일 (월) : <사실>노동자 반전운동의 의의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과 관련, 한국의 노동운동이 새로운 모범이 됨

노동일보 3월 24일 (월) : 민주노총 반전평화팀 귀국
-정부파병 저지 등 국내서 활동키로 (박현진 기자)

노동일보 3월 24일 (월) : "국민의 목소리 외면말라!"
-시민단체, 고공-온라인 시위로 파병계획 철회 촉구 (사회2부 종합)

매일경제 3월 24일(월) : 파병반대 국회앞 시위 (연합)
-반전평화팀 최병수씨가 걸개그림을 앞세우고 반전시위를 벌이는 사진설명

노동일보 3월 25일 (화) : 진보정당 파병반대 각론선 차이 (홍영용 기자)
-민노당,국민투표, 사회당 파병철폐노대통령전범기소, 사민·녹색평화당,성명 발표

우먼타임즈 3월 25일 (화) : 세계여성반전평화 운동가 활동사 (이재은 기자)
-국내 여성반전평화운동가들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 의 일원으로 이라크 현지가서 활동

우먼타임즈 3월 25일 (화) : 이슬람 여성들의 현실 (이선민 기자)
-반전평화팀으로 이라크 다녀온 오김숙이씨의 이라크 여성들의 생활 보고 인용

우먼타임즈 3월 25일 (화) : 온몸으로 전쟁막는 유은하씨 (최희영 기자)
-유은하씨. 그가 보내온 인터넷 편지와 주변 사람들과의 인터뷰

매일경제 3월 26일(수) : 이라크전 반전평화팀 유은하씨가 전한 25일 바그다드
-10살짜리 가슴,다리에 파편, 민간인들의 피해, 연기로 뒤덮힘 (강훈상 기자)

노동일보 3월 30일 (일) : 이라크 반전평화팀 3명의 전쟁보고서 (최수경 기자)

-이라크 반전 평화팀(PT) 3인(한상진, 배상현, 유은하)이 국내에 보내온 이라크 전쟁관련 보고서 내용.

매일경제 3월 30일(일) : 이라크반전평화팀 "파병하면 국적포기" (김영만 기자)

-반전평화팀 우리나라 정부가 파병하면 국적을 포기할 것

매일경제 3월 31일(월) : 콘텐츠 비즈 포털이 전쟁특종? (신익수 기자)

-사이월드에 있는 반전평화팀 유은하씨 동호회 게시판에 현지의 상황 전함

매일경제 4월 1일(화) : 이라크전인간방패 배상현씨 3일오전귀국 (김영만 기자)

-이라크 바드다드에서 인간방패로 활동했던 배상현씨 3일 귀국

매일경제 4월 2일(수) : 한상진씨 무사.. 요르단 압만 도착 (매일경제 TV)

-한상진씨 무사하며 현재 요르단 압만에 도착한 것이 확인됨

노동일보 4월 3일 (목) : 인간방패 "한국국적 버리겠다" (김봉석 기자)

-임영신씨 귀국후 포기의사 밝혀 배상현씨도 할듯 ... 집단화 우려

노동일보 4월 3일 (목) : <지금 넷에서는> '파병때 국적포기' 논란

-임영신씨가 한국국적 포기 의사 밝히자 홈페이지에 지지와 비판 논란

매일경제 4월 3일(목) : 파병시 국적포기 네티즌 공방 (김상희 기자)

-배상현, 임영신씨 정부의 파병결정에 항의 국적포기의사, 네티즌 찬반논쟁

매일경제 4월 3일(목) : 시민단체, 파병안 위헌 (황희경 기자)

-국회의 파병동의안 처리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계속됨

매일경제 4월 8일(화) : 반전평화팀, 파병철회 천막농성 (황희경 기자)

-반전평화팀 소속 9명 미국의 이라크침략중단, 정부의 파병결정철회 요구

우먼타임즈 4월 8일 (화) : "이라크전 파병 철회하라" (장철영 기자)

-이라크 반전평화팀의 배상현, 오김숙이, 임영신씨가 청와대 앞에서 파병 철회를 주장

우먼타임즈 4월 8일 (화) : 파병반대 시위는 계속됐다. (장철영 기자)

-파병반대시위에 참여한 반전평화팀원들의 사진

노동일보 4월 9일 (수) : "침략공범자 가담은 안된다" (김봉석 기자)

-이라크반전평화팀원 9명이 한국군 파병저지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

노동일보 4월 10일 (목) : 여성의 이름으로 반전평화를 (안일권 기자, 사진)

-여성해방연대 회원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원들 여성과 소수자들 위해 촛불시위

노동일보 4월 13일 (일) : 스러져간 '평화의 꽃' (안일권 기자, 사진)

-한국 이라크반전평화팀 은국씨 붉은 물감을 몸에 뿌리고 누워 추모 퍼포먼스

노동일보 4월 13일 (일) : 다시 불붙는 반전운동 (김봉석 기자)

-서울, 부산 등 11개 지역서 동시 개최 "이라크 스스로 재건하도록 지원할 것

노동일보 4월 17일 (목) : 파병반대 (안일권 기자, 사진)

-반전평화팀 회원들 은몸에 붉은 물감을 뿌리고 누워 파병 중단 기습시위

매일경제 4월 30일(수) : 쯔피폴 인간방패 배상현 (이길상 기자)

- 배상현씨와의 인터뷰와 인물 소개-평생 잊지 못할 기억들

매일경제 7월 23일(수) : 정신대 수요집회 참석한 이라크여성 (정성호 기자)

-임영신씨의 초청으로 이라크여성 방한, 시민단체 인권단체 둘러봄

주간지

<한겨레21>

한겨레21 3월 5일 (수) : 먼저 공포부터 맛보라 (김동문 전문 위원)

- 이라크로 들어가는 한국반전평화팀의 인터뷰

한겨레21 3월 27일 (목) : 그러나 이라크는 순종하지 않으리(정인환 기자)

-반전평화팀 임영신씨의 이라크 주민과의 대화5줄

한겨레21 4월 10일 (목) : 엄마, 아빠 전쟁은 왜 하나요? (권혁철 기자)

-현장교사들이 평화교육위해 한국반전평화팀 사이트 이용한다는 기사1줄

한겨레21 4월 17일 (목) : 정녕 미국은 승자인가? (류우종 기자)

- '국제 반전평화 공동행동의 날' 집회에서 은국(23)씨의 평화를 염원하는 퍼포먼스사진

한겨레21 5월 18일 (일) : 우리의 치료가 햇볕 한줌 된다? (김양중 기자)

-보건의료단체연합이 반전평화팀과 함께 바그다드에서 의료활동

<시사저널>

시사저널 2월 20일 (목) : "살아서 돌아오겠다."

-한국인 '인간방패' 3명 이라크로 출국

시사저널 4월 3일 (목) : "내 시체를 찾지 말라"(신호철 기자)

-바그다드의 '마지막 평화 지킴이' 한상잔-유은하-배상현 씨 소개

시사저널 4월 17일 (목) : 국론은 더욱 분열되어야 한다? (노순동 기자)

-반전평화팀 소속 임영신씨 국적포기 선언

<주간동아>

주간동아 3월 6일 (목) : 이라크 초청받은 회원 같까 말까 (김시관 기자)

-한국 반전평화팀 회원 7명을 비롯해 각국의 민간단체가 '인간방패' 를 자원, 바그다드로 속속 모여들고 있는 상황이라 의신들이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도 부담

주간동아 3월 13일 (목) : "인간방패 소식 궁금하지 않으세요?" (최영철 기자)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지원연대 염창근 사무국장(27)과의 인터뷰

주간동아 4월 3일 (목) : 불타는 바그다드 ... 공포와 분노의 나날 (권기태 기자)

-한국 이라크반전평화팀의 임영신씨는 "더 이상 CNN에 귀를 기울이고 싶지 않다. 그들이 담아내는 것은 전쟁이지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

주간동아 4월 17일 (목) : 반전팀의 국적 포기 선언 '박수 우 비난 우' (김현미 기자)

-이라크에서 귀국한 반전평화팀 소속 배상현,임영신씨의 국적포기선언에 대한 기사

주간동아 6월 19일 (목) : 기념사진 찍으려고 이라크 가나 (최영철 기자)

-함람미달 일부 단체 '생색내기' 구호활동... 이라크 반전평화팀의 최혁 팀장 개탄.

<주간조선>

주간조선 4월 17일 (목) : 이라크전 뒷이야기 (유나니 기자)

-'인간방패' 임영신씨가 본 '현장'

<대학생신문>

대학생 신문 2월 9일 (일) :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3명 요르단 도착

-이라크 전쟁 중단, 한국의 이라크 전쟁 파병 반대 요구 반전평화팀 3명 요르단 도착

대학생 신문 2월 18일 (화) : 이라크 전쟁, 맨몸으로라도 막겠다. (원주 기자)

"전쟁을 피하기 위해 맨몸으로 전쟁을 막고자 이라크로 출발합니다." 반전평화팀 포부 밝

대학생 신문 3월 9일 (일) :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현지보고 2-1 (성혜란 객원기자)

-2월 27일 바그다드에 도착해 폭풍전야의 분위기, 평화팀으로서의 집회 활동 등을 소개

대학생 신문 3월 9일 (일) :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현지보고 2-2 (성혜란 객원기자)

-3월 4일 타흐리르 광장 이라크인들과 행사, 인간방패의 모습, 바그다드를 떠날때까지의 일

대학생 신문 3월 11일 (화) :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은국, 허혜경씨 2인 귀국해 (원주 기자)

-11일 한달여간 요르단, 이라크에서 활동했던 반전평화팀 2인 귀국, 간담회와 글쓰기 계획

대학생 신문 3월 13일 (목) : 평화의지는 이용될 수 없다. (원주 기자)

-조선일보 '인간방패' 전략적으로 이용' 보도, 부정확한 보도가 평화운동가에 대한 오해 만들

대학생 신문 3월 19일 (수) : "전쟁은 그만해요" (원주 기자)

-반전평화팀 '박기범 이라크 통신'모임의 아이들이 피켓과 풍선들고 반전 시위에 참여

대학생 신문 3월 19일 (수) : 커밍아웃-그와 우리의 생각 (버들)

-노무현이 미국의 이라크전쟁을 적극지원하겠다고 '커밍아웃'한 것에 신랄한 비판

대학생 신문 3월 19일 (수) : 한국 이라크반전평화팀 허혜경씨 (원주 기자)

-이라크에서 활동한 소감, 바그다드 사람들의 상황, 어려웠던 점, 앞으로의 계획 등 밝힘

대학생 신문 3월 23일 (일) :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현지보고 3 (성혜란 객원기자)

-17일 전쟁이 시작된 폭탄 불길이 치솟는 상황과 평화의 촛불 시위 상황 보고

대학생 신문 3월 23일 (일) : 이라크에 남은 반전평화팀 배상현씨 (성혜란 객원기자)
-전쟁이 시작되고 세명의 평화팀원이 바그다드에 남음. 배상현씨는 인간방패로 활동

대학생 신문 3월 23일 (일) : 요르단 대사관 앞 파병반대 시위 (성혜란 객원기자)
-불법적 미국 침략에 군대 파병하면서 반대시위에게 합법적이기를 요구하는 정부를 비판

대학생 신문 3월 25일 (화) : 발견 이사람 그의 전쟁 (원주 기자)
-반전평화팀 지원연대 염창근 사무국장 반전평화팀 뒷바라지에 잠을 못자며 생활하는 모습

대학생 신문 3월 25일 (화) : 편집자가 독자에게... 눈물, 두 번째 (원주 기자)
-반전평화팀 활동중인 친구의 눈물을 보며 진정 전쟁의 아픔을 다루지 않는 언론에 비판

대학생 신문 3월 31일 (월) :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이라크 현지 소식 (원주 기자)
-배상현씨가 보낸 메일을 통해 23~27일까지의 근황 소개

대학생 신문 3월 31일 (월) : 한국 이라크반전평화팀 요르단 현지보고 (성혜란 객원기자)
-2일로 늦춰진 한국군 파병 결의안 표결이 늦춰지지 않고 폐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달

대학생 신문 3월 31일 (월) : 파병반대가 아니라 전쟁반대 외쳐야 (설동준 기자)
-한국군 파병 수정안을 비판하고 한국이 전쟁 지지국임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

대학생 신문 4월 2일 (수) : 나는 인터넷에서 반전운동한다. (최대연 기자)
-다양한 반전 사이트 소개, 네모성, 맘맘바이러스, 박기범 이라크통신 등

대학생 신문 4월 6일 (일) : 한국 이라크반전평화팀 이라크 현지소식2 (원주 기자)
-이라크에서 유은하씨와 합류 중이 박기범씨가 현지상황을 전달함

대학생 신문 4월 6일 (일) : 한국 이라크반전평화팀 요르단 현지보고2 (성혜란 객원기자)
-한국군 파병 소식, 배상현씨의 귀환, 박기범씨 이라크 입국 등 현지 상황 보고

대학생 신문 4월 13일 (일) : 한국 이라크반전평화팀 요르단 현지보고3 (성혜란 객원기자)
-구호와 지원활동이 시급한 이라크의 상황, 개건과 평가가 필요함을 역설

대학생 신문 5월 31일 (토) : 아직 평화운동가들이 할 일은 남아있다. (설동준, 원주 기자)
-명동성당에서 계속되는 촛불시위, 파병은 되더라도 전쟁반대는 계속 외쳐야 한다.

대학생 신문 6월 9일 (월) : 한국 이라크반전평화팀 현지보고-마지막 (성혜란 객원기자)
-죽음을 넘어선 삶을 위해, 언제나 다시 '시작'

대학생 신문 6월 9일 (월) : 내 맘에 평화를, 사람다운 사랑을..... (원주 기자)
-피해복구가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노력 필요, 반전평화팀원들 한국에서 활동 이어가고 있음

대학생 신문 6월 9일 (월) : 이라크 재건은 평화주의자들의 손으로 (임세환 기자)
-반전평화팀 4명 이라크 민중지원 영상기록 목적으로 출국, 의료지원팀도 출국 예정

대학생 신문 6월 26일 (목) : 팔레스타인 평화활동 마치고 귀국한 은국씨 (임세환 기자)
-은국씨, 세계병역거부자대회 참가, 팔레스타인에서 반전활동가들과 반전평화활동 전개

<시민의신문>

시민의 신문 2월 5일 (수) : 이라크전 평화정신으로 무장한 몸으로 막겠다 (정용인 기자)
-'인간가치를 지키고 세계평화실현에 보탬이 되게 이라크행 결정' 한상진씨 출국 기자회견

시민의 신문 2월 5일 (수) : [해설] - 평화운동가 이라크 출국 의미 (정용인 기자)
-"한국이라크평화팀, 분쟁지역 지원네트워크 구축 계기 될 것"

시민의 신문 2월 12일 (수) : 한국 이라크평화팀, 요르단 현지 무사도착 (정용인 기자)
-반전평화팀 요르단 도착, 이번주 중 7명 출국예정, 다양한 후원행사 모금 반전캠페인

시민의 신문 2월 24일 (월) : 이라크평화팀 요르단 반전시위 참가기
-이라크 인접국 이유로 외신 관심집중...종교기도문 반미구호와 같이 외쳐

시민의 신문 2월 24일 (월) : 한국 이라크평화팀 3진 출국 (정용인 기자, 사진 이정민 기자)
-한국이라크평화팀 3진 4명이 이라크로 출국

시민의 신문 3월 14일 (금) : 전쟁지지청와대 항의방문단 또 연행 (사진 양계탁 기자, 정용인기자)
-북한핵과 이라크를 맞아꾸러는 정부의 태도에 대한 비판 항의 시위

시민의 신문 3월 14일 (금) : 이라크평화팀 '요르단 왔지만 아이들 가르거려' (해외기획 기자)
-한국이라크평화팀 박기범씨의 현지일기 소개

시민의 신문 3월 19일 (수) : 미국, 11월부터 이라크전 지지요청 (정용인 기자)
-정부, 미국으로부터 지지요청 받아, 시민사회단체 대표단 외교장관 면담결과 공개

시민의 신문 3월 20일 (목) : 시민사회단체 대표 평화주의자들 1백여명 미 대사관 앞 농성(사진 이정민 기자, 김세욱 기자)
-이라크 침공 중단과 파병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촛불시위에 결합

시민의 신문 3월 20일 (목) : 부시미대통령 20일 낮 이라크 침공 선언, 반전서명운동 카페개설 본격화(이준희 김세욱 기자)
-부시대통령이 이라크침공을 선언한 가운데 사이버상 네티즌들의 반전여론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시민의 신문 3월 20일 (목) : 바그다드 한국이라크평화팀 위기상황 (이준희 기자)
-바그다드 현지 한국평화팀 3명 남아

시민의 신문 3월 20일 (목) : 이라크평화팀 침공반대 기자회견 (김세욱 기자)
-한국 정부의 이라크 전쟁지원 반대, 인류에 대한 범죄, 다음희생자는 한반도가 될 수도 있음을 지적

시민의 신문 3월 20일 (목) : 노대통령은 이라크전 지지를 당장 철회하라 (이준희 김세욱 기자, 사진 양계탁 기자)

-전세계 곳곳에서 반전평화시위, 시민사회단체들과 4천여 시민들 반전평화 촛불집회 개최

시민의 신문 3월 21일 (금) : 이라크평화팀 “당하는 자의 시선으로 이라크현실 증언할 것”(정용인 기자)

-한국 평화팀 이라크 전쟁속 활동, 요르단 한국팀 선교사등과 함께 이라크 난민지원을 위한 연석회의 구성

시민의 신문 3월 22일 (토) : 주말 반전시위 '전쟁반대파병반대'한목소리 (장성순 최문주 기자, 사진 양계탁 이정민 기자)

-주말반전시위 절정, 1만명 전쟁반대, 파병반대 한목소리 촛불시위, 종묘집회서 반전평화팀 현장 전화통화

시민의 신문 3월 24일 (월) : 파병동의안 연기,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 (김세욱 기자)

-반전평화 단체 국회 안 진입시도, 여야개혁과 의원 중심 파병반대 기류 형성, 국회 파병반대 온라인 시위 중, 국회 앞 파병 동의안 저지 집회

시민의 신문 3월 28일 (금) : 한국이라크평화팀 포화속 반전활동 (정용인 기자)

-IPT, 개전 후 바그다드 병원·폭격장 방문 민간인 피해 참상 전해

시민의 신문 3월 28일 (금) : 이라크평화팀 “악이 없어 누워있던 아이모습을 잇을 수가 없습니다.” (정용인 기자)

-“지역 단체 돌아가 반전평화활동 계속 펼칠 것”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 4인 귀국표정

시민의 신문 4월 2일 (수) : 파병동의안 찬성 179, 반대 68 가결돼 (장현주 기자)

-청와대 파병안 통과 환영 “한미동맹관계 굳건한 계기로”, 국회진입 시위 이어져

시민의 신문 4월 2일 (수) : 이라크평화팀 한상진씨 피폭설 오보 (정용인 기자)

-“지역 단체 돌아가 반전평화활동 계속 펼칠 것”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 4인 귀국표정

시민의 신문 4월 2일 (수) : 파병동의안 찬성 179, 반대 68 가결돼 (장현주 기자)

-청와대 파병안 통과 환영 “한미동맹관계 굳건한 계기로”, 국회진입 시위 이어져

시민의 신문 4월 2일 (수) : 이라크평화팀 한상진씨 피폭설 오보 (정용인 기자)

-이라크평화팀 13명 요르단 무사 도착 연락받아

시민의 신문 4월 3일 (목) : 파병결정취소 헌법소원 제기 (김세욱 기자)

-참여연대, 민변 파병결정취소 가처분 신청

시민의 신문 4월 3일 (목) : ‘한국인인 게 부끄럽다’, 인간방패팀귀국 이라크참상 미방송보다 훨씬 처참해 (장현주 기자, 사진 양계탁 기자)

-배상현, 임영신씨 귀국, 국회파병안통과소식에 국제포기선언 외교통상부 항의예정, 보고서 작성

시민의 신문 4월 4일 (금) : 아만의 동지를 평화의 동지로, 현장미술가 최병수씨 이라크를 가다 (최문주 기자)

- “아만의 동지를 ‘평화의 동지로’ 이라크 소녀 ‘너의 몸이 꽃이 되어’ 대형 걸개그림 제작 중

시민의 신문 4월 7일 (월) : PT, 민간피해 국제형사재판소 제소방침 (정용인 기자)

- 이라크반전평화팀, 민간인 피해조사 국제기구 제소 방침, 한상진씨 요르단으로 추방·박기범씨 이라크 재입국, 배상현씨·임영신씨 ‘파병 항의 국적 포기할 것’

시민의 신문 4월 7일 (월) : 미국 이라크 침략 고발 평화지향적 보도를 (이준희 기자)

- 이라크 침공 관련 보도에 대한 문제지적

시민의 신문 4월 11일 (금) : 80년 광주 도청사수대와 같은 심정 (정용인 기자)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 은국씨 인터뷰

“팔레스타인 등 분쟁지역 평화활동 펼치고 싶어”

“별로 좋지 않은 않죠. 성과물이 없으니. 전쟁도 결국 났고, 파병결정도 났고”

은국씨(경희대 한의학과·23세)는 요즘 심경이 어떠냐는 질문에 “착잡하다”고 말을 했다. 그는 지난 2월 16일,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이하 한국팀) 2진으로 출발, 요르단 암만과 이라크 바그다드를 오가며 한달여 기간동안 반전평화활동을 벌이고 귀국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다음에도 그는 ‘한국팀과 함께하는 시민한마당 STOP THE WAR’ 행사나 미대사관항의 집회 등 눈코 뜰 새 없는 활동을 벌여왔다. (인터뷰를 할 때 그는 이번 학기 휴학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었다) 지난달 25일엔 양심적 예비병역거부자이기도 한 그는 동료 현종수와 함께 한강대교에 올라 ‘한국군파병반대’를 외치며 고공시위를 벌였다. 지난달 22일, 시민한마당 행사에서 만났던 그는 “분위기가 너무 좋다.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가 속상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심하게 지나가는 사람들 보며 눈물나”

“이라크침략이 시작된 뒤 친구들에게 문자메시지가 많이 옵니다. 속상하겠다고. 이제 운동진영도 파병결정을 한 노무현정권에 대한 퇴진운동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하던 날, 은국씨는 4진으로 귀국한 임영신·배상현씨와 함께 청와대를 다녀왔다. 지난 여성해방연대의 청와대 방문 때와는 달리, 일단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 면담약속을 받고 왔다고. 그전날엔 경희대에서 ‘전쟁반대’ 퍼포먼스를 했다. “온몸에 피칠하고 누워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더라고요. 눈물이 나더군요. 이리다가 전쟁이 나는구나 싶었습니다. 지나가던 개가 차에 치어죽어도 다다보는데...”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는 듯 싶어 한강대교 올라갔을 때 느낌에 대해 물어보았다. “좋았죠. 오랜만에 속 시원한 투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차가 막힌다고 욕하는 운전자들도 있었지만, ‘화이팅’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그다드에 남아 있는 사람들 ‘순수함’을 잇을 수 없어

그는 한국팀으로 가기 전에도 ‘운동권’이었다. 하지만 출국 전 그를 만났을 때와 4월 다시 만난 그는 뭔가 달라져있었다. “앞에서 떠들면 좋았지만 앉아있는 한국의 집회문화는 이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시위만 하더라도 과거와는 달랐잖아요. 집회의 의의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기타를 잘 치는 사람이라면 나와서 기타를 치고...” 그는 마로니에 시민한마당행사에서 변화의 조짐을 읽었다고 말했다. 암만과 바그다드에서 경험한 것에 어떤 ‘영감’을 줬을까. 그는 부인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기존의 집회방식에 대해 답답한 느낌이 있었는데, 전세계에서 모인 활동가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새로운 것을 시작해볼 용기가 생겼습니다. 캐시캘리나 남아있는 사람들 보면, 모두 순수한 사람들이예요. 계산적인 사람이라면 거기에 남아있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요즘에도 미·영국 군대의 폭격으로 무고한 민간인이 다치고 죽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울컥 울분이 솟지만 ‘감정적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은국씨는 같이했던 한국팀동료들에 대해 ‘80년 광주에서 도청사수대가 느꼈을만한’ 끈끈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같이 했던 기간은 짧았지만 누구나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신경이 너무 예민하다보니 작은 것을 두고 부딪히기도 했지만 죄없는 이라크사람이 죽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강한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다 사람이 사는 곳인데 쉽게 죽을 것 같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죽던 살던 나와 제 주위의 사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같은 것이 서로를 묶어 주는 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한국팀 활동을 통해 맺은 ‘인연’이 비록 몇 명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겠지만, 앞으로의 활동에서도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이라크뿐 아니라 팔레스타인과 같은 분쟁지역에서 평화활동을 펼치고 싶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병역거부자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두 쉬운 길은 아니겠지만요." 인터뷰를 마친 그는 촛불시위가 진행중인 마로니에 공원으로 달려갔다.

시민의 신문 4월 11일 (금) : '파병은 전쟁 공범행위' (정용인 기자)

-반전평화팀 명동성당서 농성 시작, 가칭 이라크민중지원을 위한 연대회의 결성,지원사업으로 전환

시민의 신문 4월 12일 (토) : '부시는 한반도 전쟁위협 멈춰라' (김세욱, 이정민 기자)

-12일 전세계 국제반전평화 공동행동의 날 진행, 서울시청 앞 3천여 시민들 미국패권주의 규탄

시민의 신문 4월 17일 (목) : <속보>'파병을 철회해주시시오' 한국이라크평화팀 '시체시위'로 말씀드립니다. 파병을 철회해주시시오"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 명동농성단 교보문고 앞 '시체 시위'

시민의 신문 7월 7일 (월) : 이라크에 생명의 꽃 심다 (정용인 기자)

-한국 NGO 정보공유는 안하고 빼내려만 한다 미숙성 비판도..... 특유의 밀어붙이기로 활약
-인터뷰 한상진 이라크반전평화팀장

한국의 여러단체들이 이라크 지원을 위해 들어갔지만 막상 현지에서 펼친 활동은 엄밀하게 말해 긴급구호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다.

△사실 긴급구호가 필요했던 때는 전후 한 달의 기간이었다. 실제 바그다드의 경우, 전쟁 직후 3군데의 주요병원에 환자가 몰린 것도 그 때였다. 약품도 바닥나고, 병원도 약탈당하는 등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 병원도 응급실만 문을 열었다. 환자가 실려와도 자리가 없어 바닥에 눕히는 등, 누가 환자고 의사인지 분간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반전평화팀도 발만 동동 구르며 쫓아만 다녔다.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판단된 때와 비슷한 시기에 한국을 비롯한 여러NGO단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정밀폭격으로 민간인 피해는 거의 없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수많은 민간인 피해자를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 희생자가 워낙 많아, 알칸디 병원의 경우 폭격으로 사망한 아이들의 시체를 병원 마당에 임시로 가매장했었다. 민간인 피해가 5백여명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 어느 정부나 단체에서도 정확한 통계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보다는 민간인 피해가 적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5백여명은 아니다.

한국NGO들의 활동을 평가한다면

△한마디로 따로 제 각각이라는 생각이 든다. 서로 경쟁적으로 자기단체를 알리기 위해 노력한다. 그래도 선발대라도 보내서 현지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는 단체는 그래도 괜찮다. 선발대로 들어온 팀은 대부분 우리를 찾아왔거나 찾기 위해 노력했다. 사전조사가 제대로 안돼 현지활동이 봉 떠버린 경우도 일부 있었다.

반전평화팀은 현재 어떤 활동을 펼치고 있나.

△환경개선사업으로 청소와 방역사업을 하고 있다. 진료활동을 펼치면서 수백명의 어린이 실사환자를 만났다. 오염된 물을 그냥 먹어서다. 특히 빈민지역 어린이들은 몸이 약해서 설사만 하다가 그냥 죽는 경우가 많다. 현지 시아파 종교지도자의 협력으로 리프트트럭과 작업인부들을 지원받아 사업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개인적으로는 올 연말까지 이라크전역을 돌면서 미국의 전쟁범죄로 인한 민간인피해상황 조사보고서를 내려고 한다. 한가지

딜레마는 이번 전쟁기간에 한정하여 조사할지, 아니면 전쟁전 후세인 독재기간을 포함하여 조사할지 여부다. 후세인 독재에 의한 민간인피해는 최소 20만에서 5백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일단은 미군의 전쟁범죄 희생문제에 집중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조사에 참여한 나라들의 언어로 번역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민간법정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 현지에서 평화교육을 담당할 평화캠프 설치, 이라크 사람을 한국으로 초청, '이라크인의 눈으로 본 이라크 전쟁증언' 행사 등을 기획하고 있다.

시민의 신문 7월 7일 (월) : 소외는 계속된다 (정용인 기자)

-소수민족, 여성 어린이 전쟁으로 상황 악화, 부인병 어린이 영양실조 "전쟁이 간접적 원인"

시민의 신문 7월 7일 (월) : 이라크내 한국 NGO 활동 주목하라 (송수안 기자)

-전후 이라크 구호 구슬땀

<여성신문>

여성신문 2월 21일 (금) : 여성 피이스 메이커 이라크행 (나신아령 기자)

-온몸으로 저항하는 인간방패 반전운동 이영화, 남효주, 오김숙이, 허혜경씨 출국

여성신문 2월 21일 (금) : 인간방패는 비폭력적인 실천의 표시 (나신아령 기자)

-“여성, 어린이가 희생되는 전쟁을 맨몸으로 막기위해 간다”절박함을 표시

여성신문 2월 21일 (금) : 이라크 다음은 한반도라는 위기감, 여성들의 평화운동 참여 촉구

- 시민사회 단체들이 전쟁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적극적인 시위에 나섬

여성신문 3월 21일 (금) : 여성계 반전 활동 쟁걸음 (김선희 기자)

- 여성단체들이 '전쟁이야말로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극단적인 폭력'이라며 반전 목소리를 드높임

여성신문 3월 28일 (금) : 전쟁반대 서한 전달하려 했을 뿐

- 여성해방연대 활동가 6명 청와대 앞에서 강제연행

여성신문 4월 4일 (금) : 기어이 전쟁은 (나신아령 기자)

- 명분없는 전쟁에 파병 안된다며 700여개 여성·사회단체로 구성된 반전평화전쟁반대공동실천이 국회앞에서 시위를 벌임

여성신문 8월 1일 (금) : 전쟁상처 이길 희망, 아이들에게서 봤습니다. (나신아령 기자)

- 이라크 여성 수아드 압둘카림 초청 간담회

<뉴스앤조이>

NGO&Society 신문 3월 6일 (목) 울려라 평화의 메시지, 이라크 땅에 (양정지건 기자)

-이라크 반전평화팀 4진 출국..... 주재일 기자 포함 6명

NGO&Society 신문 3월 20일 (목) <사진기사>이라크로 들어간 사람, 혹은 남은 사람(주재일 기자)

- 요르단 암만에서의 반전평화팀의 모습

NGO&Society 신문 3월 22일 <요르단에서> 암만 시내에서 터지는 최루탄(주재일 기자)

- 반전평화팀, 팔레스타인 청년들과 함께 전쟁 반대 거리 시위

NGO&Society 신문 3월 27일 (목) : <특집 이라크 취재기> 뉴스앤조이 주재일 기자와 반전평화팀의 이라크 취재기

<이라크에서> "전쟁하려면 나부터 죽어라" -이라크에 남아 있는 휴먼실즈(인간방패) 배상현 씨 인터뷰

휴먼실즈로 참여하게 된 동기는

나는 경남평화연대 창립 멤버다. 경남평화연대는 경남지역 34개 단체가 연합해서 변혁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다. 주로 지역의 역사 바로 세우는 일 등을 추진해왔다. 2년 전부터 평화운동에 관심을 가졌다. 지난 2월 경남평화연대가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면서 인간방패(휴먼실즈)를 공개 모집했다. 나는 지체 없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평소 인간을 말살하는 폭력 앞에 비폭력 저항만이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족들의 반대는 없었나

형에게 처음 말할 때, 형은 먹고 살기 바쁘게 거기는 왜 가냐고 말했다. 그러나 내 의지를 설명하자 잘 다녀오라고 격려했다. 함께 살고 있는 할머니에게는 말씀드리지 못했다. 연세가 많아 충격을 받으실 것 같았다. 그냥 멀리 여행 다녀오겠다며 인사만 드리고 나왔다. 형 말처럼 먹고 살기도 바쁜 세상이다. 그러나 평화운동의 일선에 나선 사람을 보면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휴먼실즈 모집 공고를 봤을 때 '내가 해야 하는 일구나'하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틈도 없이 보냈다. 휴먼실즈가 되기 위해 하고 있던 미용재료 판매업도 그만 두었다. 그러나 돌아가면 뭘 할까 걱정 안 한다. 살아서 갈 수 있다면 평화운동에 몸을 던지겠다.

미용재료를 팔기 전에는 뭘했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년 동안 선반 일을 했다. 2년은 전기공사에 들어가 전국을 돌아다녔다. 20살 때 한국가톨릭청년회에 가입하면서 노동운동에 발을 들여놓았다. 가톨릭청년회에서 노동운동의 역사와 현실을 배웠다.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노조에 가입했고, 조합의 간부까지 했다. 한국은 아직도 노동환경이 열악하다. 그래서 할 일이 너무 많다.

IPT가 아니라 휴먼실즈를 택한 이유는 뭔가

이라크 전쟁은 막아야 한다. 자신의 몸을 던져서라도 이 전쟁을 막겠다는 휴먼실즈의 입장에 공감했다. IPT의 활동은 이것보다는 전쟁 이후의 활동을 더 많이 고려하는 것 같다. 나에게 이것은 차선책이다. 우선은 전쟁을 막아야 한다. 나는 전쟁을 막고 싶어서 이라크에 왔지 전쟁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다.

서울에서 떠난 지 일주일만에 이라크에 들어왔다. 힘든 일이 많았을 것 같다

한국에서 큰 생각을 가지고 출발했다. 요르단 암만 공황에 내리면서 몸 바쳐 일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내가 이런 생각에 끝을 해서 일까. 암만에 있는 한국 반전평화팀을 보니 실망스러웠다. 경력을 쌓기 위해서 온 사람, 한국에서 위치를 고려하고 있는 사람 등등. '모두 내 맘 같지 않구나'하고 한탄했다. 사람들이 실망스러웠다. 그러나 이런 생각도 이라크를 들어오면서 모두 정리했다.

이라크의 첫 느낌은 어땠나

밤새 시막을 달려 바그다드에 도착했다. 차에서 수많은 별과 지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붉은 태양을 봤다. 이렇게 고요한 땅에서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 믿어지지 않았다. 그 동안 반전평화팀에 실망했던 마음도 가셨다. '이곳에 온 모든 사람은 평화를 위해 왔다. 나도 그렇다고 마음을 다졌다. 바그다드에서 만난 이라크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너무나 순수하고 친절했다. 이방인에 대한 적개심도 없었다.'

전쟁을 막는 것과 함께 증언하는 일도 중요한데

마산에서 나를 보낼 때도 돌아와서 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곳에서 좀 더 안전한 길을 누가 알 수 있겠는가. IPT는 나보다 공부도 많이 하고 기술도 있는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하기에 좋은 곳이다. 굳이 내가 아니어도 할 사람이 많다. 나는 휴먼실즈가 정한 5곳의 사이트(폭격예상 지점) 중에서도 일차 폭격지점에 가고 싶다. '미국애 내가 양심이 있으면 이럴 순 없다. 전쟁하려면 나부터 죽이고 해봐라'하는 심정뿐이다.

죽을 가능성이 너무 크다. 두렵지 않은가

전혀 두렵지 않다. 주요 사이트는 엄청난 폭격을 가한 후에 특수부대가 들어온다고 한다. 폭격을 피한다고 해도 미국의 특수부대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들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무고한 살인이 뒤따랐다. 나라고 죽음을 피할 수 있겠나. 그러나 평화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

어제 사랑가게 아저씨가 나에게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전쟁을 막을 순 없다"고 말했다. 그 분은 현실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다. 겨우 50여 명의 목숨으로는 전쟁을 막기 힘들다는 소리다. 많은 사람들의 힘이 필요하다. 500만 명이 인건방패라면, 제 아무리 미국이라 해도 전쟁을 쉽게 일으키지는 못할 것이다

NGO&Society 신문 3월 30일 (일) : <요르단에서> 한국대사관 앞 파병 반대 시위

- 7명의 한국 반전평화팀, 세계 평화운동가 20여 명 동참



▲©뉴스앤조이 주재일

엔지오& 사회 신문 4월 3일 (목) : <요르단에서> 파병 반대 위해 이라크 재입국 시도(주재일 기자)

-반전평화팀 6명 이라크 입국 계획... 한국 정부에 항의성명 발표

엔지오&사회신문 4월 7일 (월) : 바그다드 의약품 시급, 한상진씨 인터뷰(주재일 기자)

IPT에서 활동하게 된 계기는.

작년 11월 첫째가 Peace Force를 만들었고, 이보다 두 달 앞선 9월 나와 몇 명의 평화운동가들이 한국에서 비폭력평화연대를 시작했다. 이라크 전쟁의 기운이 감돌던 작년 12월 이라크에 와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다. 우선 첫째로부터 비폭력평화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케시 켈리를 소개 받았다. 그는 IPT에 활동하고 있으며, 91년 걸프전 때도 이라크에서 평화운동을 했던 사람이다.

죽음도 각오해야 하는 일이다. 결정하는데 힘들지 않았다.

2년 동안 준비해왔다. 사상이나 마음, 몸 등 모든 것이 정연한 상태로 이라크에 들어가 문제가 없었다. 2년 전 베트남전 진실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괴한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그는 망치 모서리 부분으로 나의 머리를 가격했다. 나는 수십 바늘을 꿰매야 했다. 다행히 생명이 지장이 없었다. 그러나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순간이었다. 이러한 경험은 평화운동이 우선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줬다. 그리고 이라크행을 결정하는 데도 도움을 줬다고 생각한다.

이라크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나.

전쟁 전부터 IPT 회원이 되어 발전소, 정수시설, 식량저장창고 등 민간기간시설을 방문했다. 꾸준히 학교와 병원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했다. 전쟁 이후 이라크 정부의 탄압으로 활동을 거의 할 수 없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 IPT가 원하는 것은 거의 할 수 있었다. IPT를 관리하던 정부 직원 외다 씨나 제이드 씨가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줬다. IPT는 전쟁 중에는 증인활동에 주력했다. 민간인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고, 현장을 찾아가 목격자들의 증언을 녹취했다. 이것들을 모아 국제법에 미군을 회부할 것이다.

나는 정부가 허락하지 않는 곳에서 사진을 찍는 등 스파이 혐의가 있다고 의심을 받았다. 이라크 군부는 사실 확인 없이 바로 나를 추방시켰다. 그리고 IPT를 관리하던 정부측은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있다고 믿는다. 감시원 마인더 씨는 바그다드를 떠나는 나에게 "평화로운 때 다시 만나자"고 말했다. 이제 전쟁 중에는 오지 말라는 소리다. 친구로서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인더에게 고맙다. 그러나 나는 다시 바그다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후 활동 계획은 무엇인가.

우선 IPT의 상황부터 말해야 한다. IPT는 현재 10명이 바그다드에 남았다. 최종적으로는 5명만 남기고 모두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유은하 씨는 정식 IPT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결정에 달렸다. 유 씨는 끝까지 남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나는 그와 함께 나오려 했다. 내가 나오던 날 그는 짐까지 꾸렸다가 마음을 바꿨다. 이라크 사람들 곁에 남겠다고 했다.

앞면에 있는 IPT 활동가들은 일부는 본국으로 돌아가 전쟁 중지를 위한 운동을 할 예정이다. 전쟁에 대한 경험을 알리면 반전 여론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부는 남아서 'Peace Caravan'을 조직했다. Peace Caravan은 미군과 영국군에 의해 봉쇄된 바그다드와 바스라에 의약품과 식량 등을 배급하는 일을 계획하고 있다.

바그다드는 지금 의약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나도 봉쇄된 구급 루트를 뚫기 위해 레드 크레센트와 접촉 중이다. 레드 크레센트는 "우리를 통로로 이용하라"며 비자 문제까지도 적극적으로 풀어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제는 바그다드를 봉쇄하고 있는 미군이다.

한국팀 공동대표지만 IPT와 주로 활동했다. 그 이유는.

한국의 반전운동을 위해 이라크 사람들을 이용한다고 생각해 불만이였다. 그러나 나는 나오는 것을 계산하지 않았다. 전쟁 전에만 들어가도 좋았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유로웠다. 한국팀은 이라크 비자를 받지 못해 조금해 했다. 사실 이라크 비자를 못 받는 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외국인들도 많게는 두 달도 기다리다가 받지 못하고 돌아간 경우가 있다. 우리만 너무 조금하게 여겼다.

반전평화팀 공동대표로서 너무 개인적으로 움직인 것은 아닌가.

내가 그랬던 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무감 같은 것은 없었다. 게다가 나는 팀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더 편하다. 나도 모르는 사이 한국팀에서 나를 공동대표로 세워놓았다. 처음부터 이 운동을 주동했던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꼈다. 그래서 공동대표직을 수락했다. 그러나 팀을 운영하는 데는 전혀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바그다드에 머무는 동안 한국팀의 바그다드 팀장으로 활동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러시아 유학생 정재원 씨가 휴먼실드로 들어와 있어 책임감을 느꼈다. 이후 배상현, 유은하 씨가 바그다드에 남아서 함께 활동했다. 전쟁 후에는 반전운동과 지원사업의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반전 여론을 모아내는데도 함께 활동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국팀과는 피해자를 만들어 내는 시스템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나는 이라크를 나오면서 끊어진 구호 보급로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반전평화팀도 구호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로 협력할 부분이 많은 것 같다.

NGO&Society 신문 4월 23일 (수) '눈물'로 시작하는 평화운동 (주재일 기자)

- 한국 반전평화팀 활동 소개

NGO&Society 신문 7월 10일 (목) :이라크 사람의 눈과 귀로 만나는 전쟁 (주재일 기자)

- 이라크 여성 수아드 압둘 카심 이라크 전쟁을 증언하기 위해 한국 방문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 2월 7일 (금) : 우리는 '인간방패' 아닌 '평화지킴이'(김지은 기자)

-[인터뷰] 이라크로 떠나는 여성주의자 오김숙이

다음미디어 2월 7일 (금) : "폭격 예상 시설 앞 피켓시위..."(오마이뉴스)

-한국의 평화운동가들이 이라크전 반대위해 출국예정

다음미디어 2월 7일 (금) : 한국 '이라크反戰팀' 출국(경향신문)

-반전평화팀 소속 이영화, 남효주양 모녀, 한상진등 3명 이라크로 출발

연합뉴스 2월 7일 (금) :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출국 (성연재 기자)

-반전평화팀 이영화, 남효주, 한상진씨 기자회견

다음미디어 2월 8일 (토) : "전쟁, 온몸으로 막겠다"(오마이뉴스)

-반전평화팀 출국, 13일 7명 추가로 떠날 예정

다음미디어 2월 8일 (토) : 주요연합뉴스 (연합뉴스)

-반전평화팀 소속 이영화, 남효주양 모녀, 한상진등 3명 출국전 기자회견

다음미디어 2월 11일 (화) : 2월 둘째주 주간인권호름(오마이뉴스)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 소속 3인 인간방패위해 이라크로 출국

오마이뉴스 2월 12일 (수) : 이라크전 지원은 동맹자속 비용?(정옥식 기자)

-이라크에서 만날 한국의 군인과 한국반전평화팀의 '인간방패'

다음미디어 2월 12일 (수) : 국내 시민사회단체 국제 반전평화운동에 본격 동참(오마이뉴스)

-한국 이라크평화팀 3명 1차로 이라크로 출국, 이후 떠날 사람들도 줄을 잇고 있다.

오마이뉴스 2월 15일 (토) : "맨몸으로 이라크전 막겠다."(김지은 기자)

-마로니에 공원에서 펼쳐진 215 국제공동 반전평화대행진에는 16일 출국을 앞둔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2인이 참석, 결의를 다졌다.

허혜경씨는 "전쟁은 인간성을 말살하고 인간과 자연을 파괴한다"며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꿈을 뿌리부터 파괴시키는 전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씨는 또한 "만약 이라크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현장의 목격자가 돼 전쟁의 만행을 낱알이 고발하고 이라크 민중들과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미디어 2월 15일 (토) : NO WAR, 부시괘팔기등..."반전" 물결(오마이뉴스)

-출국예정인 반전평화팀 2인 참석하여 결의 다짐

다음미디어 2월 15일 (토) : '전쟁 반대' 위해 이라크 가는 여성활동가(연합뉴스)
-3진으로 떠나는 여성운동가 오김숙이씨의 기자회견

다음미디어 2월 15일 (토) : 국내 6개도시서 대규모 반전시위(연합뉴스)
-허혜경씨등 반전평화팀 2진 집회 참여하여 결의 다져

오마이뉴스 2월 16일 (일) : 이라크 반전 평화팀 2차 출국(전민성 기자)
-한국 이라크 반전 평화팀 소속 2진(은국,성혜란,허혜경,전승로)이 출국함



▲ 이라크 반전평화단 2진, 은국, 성혜란, 허혜경, 전승로씨(왼쪽부터)

다음미디어 2월 16일 (일) : 장애인들도 국제반전의 날 동참
-2차로 출국하는 4명 결의 밝힘

다음미디어 2월 16일 (일) : 이라크 반전평화팀 2진 출국(오마이뉴스)
-반전평화팀 2진 출국

오마이뉴스 2월 18일 (화) : '그들'이 이라크로 떠난 이유 (허혜영 기자)
-반전평화의 행렬, 지난 7일 3명이 출국 이어, 16일 또다시 이라크 땅으로 떠났다.

오마이뉴스 2월 18일 (화) : '경남평화연대', 반전평화팀 보낸다 (윤성호 기자)
-열린사회희망연대 등 32개 단체 '경남평화연대' 구성 제안

다음미디어 2월 18일 (화) : 전세계가 외친다, NO WAR!(오마이뉴스)
-이라크반전평화팀, '인간방패' 자원한 2진 4명 출국(2.16)

다음미디어 2월 18일 (화) : '경남평화연대', 반전평화팀 보낸다
-반전평화팀 운동 벌여..

연합뉴스 2월 18일 (화) : 경남 시민단체 반전평화팀 파견키로 (김영만 기자)
-경남지역 32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 반전평화팀 공개 모집

민중의 소리 2월 19일 (수) : 이라크 반전평화팀 3진 출국(영종도/연합뉴스)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3진 오김숙이(34.여)씨가 19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

다음미디어 2월 22일 (토) : <바그다드 표정>'전쟁 불사 무거운 시내 분위기'(연합뉴스)
-한국반전평화팀 한상진,허혜경씨등 바그다드에 입국 현지 보고

다음미디어 2월 22일 (토) : 민족자주 선포식, 반전평화 1인시위(오마이뉴스)
-반전평화팀 후원 캠페인 전개

연합뉴스 2월 22일 (토) : 이라크 반전평화팀 4진 출국 (박창욱 기자)
-반전평화팀 4진 4명 출국

다음미디어 2월 24일 (월) : 이라크 反戰 평화운동 본격 가동(연합뉴스)
-반전평화팀 바그다드에서 항의시위 등 본격적인 활동

다음미디어 2월 24일 (월) : 바그다드 주재 외국 공관원 60% 철수(연합뉴스)
-바그다드에 있는 팀의 현황 보고

오마이뉴스 2월 27일 (목) : "전쟁 막으러 이라크 가서 뭐든 하겠다"
-경남평화연대 소속 반전평화팀 2명 파견, 이해종 배상현씨

다음미디어 2월 27일 (목) : 한국 평화운동가 13명 이라크 입성 눈앞(굿데이)
-한국의 평화운동가 13명 요르단을 거쳐 이라크 입국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다음미디어 2월 27일 (목) : "전쟁 막으러 이라크 가서 뭐든 하겠다"(오마이뉴스)
-4진으로 출국예정인 배상현씨와 이종해씨 기자회견

연합뉴스 2월 27일 (목) : 경남 반전평화팀 이해종, 배상현씨 (김영만 기자)
-내달초 이라크에 파견될 경남 반전평화팀 담당할 심경 밝힘

시민사회단체 소식지

참여사회 2월 7일 (금) : 맨몸으로 전쟁을 막겠다! (황지희 기자)

-제2신-반전평화운동하러 떠나는 '한국 이라크평화팀' 의 기자회견 내용과 인물소개

참여사회 2월 20일 (목) : 이제는 여성이 평화를 말한다 (전옥배 기자)

-반전평화팀 2진에 참가한 여성들이 말하는 평화에 대한동영상

참여사회 3월 12일 (수) :부시는 당장 이라크에 가보라, 그러고도 전쟁을 하..(황지희 기자)

-이라크 현지에서 반전평화운동을 펼치고 돌아온 허혜경, 은국 씨와의 인터뷰

참여사회 3월 12일 (수) : "이라크 어린이를 본다면 전쟁을 할 수 없을..."(전옥배 기자)

-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은국, 허혜경씨 귀국 [동영상]

참여사회 3월 20일 (목) : "전쟁이 아니다. 침략이다!"(김선중 기자)

-미국의 전쟁중단과 한국정부의 파병반대 목소리 확산

환경련 3월 21일 (금) : 미국은 이 잔혹한 학살을 중단하라(정책실 복진오)

-반전평화팀의 한상진, 배상현, 유은하씨 이라크에 남아

참여사회 3월 24일 (월) : 파병반대집회가 불법이면 이라크침공은 합법이나?(장윤성 기자)

-<암만 현지소식>한국이라크평화팀, 암만에서 '파병반대' 성명 발표

참여사회 3월 26일 (수) : [동영상] 한강대교 교각에서 벌어진 기습 반전시위(전옥배 기자)

-이라크 반전 평화팀 은국, 효종씨의 3시간 반전시위

참여사회 3월 28일 (금) : "옳지 않은 전쟁에 참여하지 마세요!"(황지희 기자)

-한국반전평화팀 요르단에서 파병반대 촛불시위

참여사회 4월 3일 (목) :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겠다"(장윤선 기자)

-이라크 반전평화팀으로 활동하다 귀국한 임영신 씨 국적포기 선언

환경련 4월 8일 (화) : "그들에게서 평화를 보았습니다" (문진미 간사)

-반전평화캠프 8일째 인간방패 임영신씨 방문

참여사회 4월 17일 (목) : 바그다드 리포트(1)(이승희 기자)

-한국이라크 반전평화팀이 보내온 바그다드 현지 소식

참여사회 5월 30일 (금) : 한국이라크평화팀 7월 이라크 현지활동 매듭(김선중 기자)

-6-7월 집중 구호 및 지원활동...전쟁백서 발간할 계획

참여사회 7월 10일 (목) : "왜 이라크의 안중은 모습만 보여주는거죠?"(김선중 기자)

-임영신씨의 초청으로 한국에 온 이라크여성 수아드와의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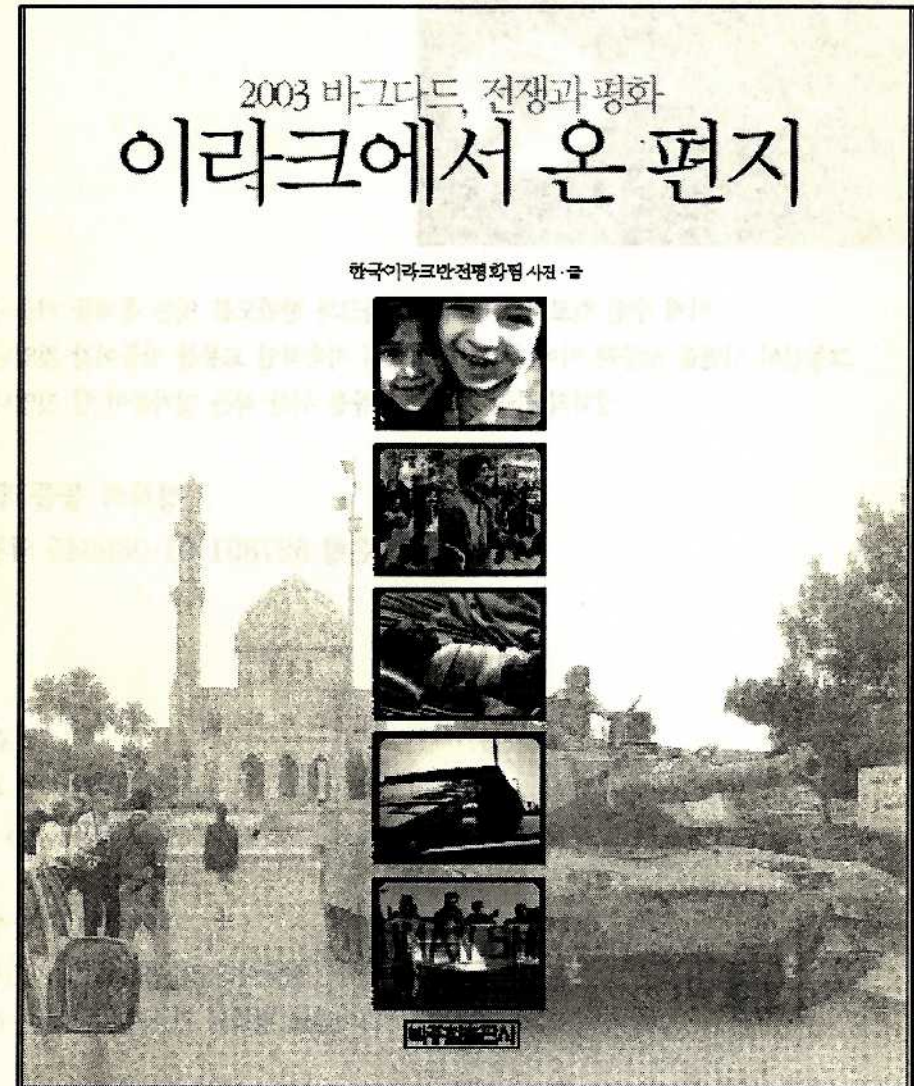
사람이 사람에게 (4.5월호) : 전쟁은 끝났지만.. 나의 삶, 나의 죽음 (오김숙이)

-오김숙이의 글 수록

말 3월 8일 (토) : 한국반전평화팀의 이라크 소식 (박기범)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소속 박기범씨의 이라크 소식

이라크 현지에서 보내온 반전평화의 기록!



글·사진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

값 15,000원

다량구입문의 02-874-1470(박종철출판사), 02-784-4482(이라크지원연대)

* 책의 수익금은 이라크 민중지원 성금 및 반전평화운동 기금으로 쓰입니다.

